

04

발행인의 글

06

축하의 글

08

금농인

바다는 나의 직장이다

해녀 양윤열 할머니

글 | 이윤영

12

금농인

36년 금농리의 땅을 지켜온

농업을 나누는 농부 임철호

글 | 김순일

14

금농인

한림읍 첫 여성읍장과의 솔직하고 즐거운 만남

고경희 한림읍장

글 | 이상숙

16

금농 in

금농리 천신제 봉행

농향원

글 | 차영옥

18

금농 in

금농해변의 화려한 변신

선진터

글 | 김순일

20

금농 in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금농꿈차롱작은도서관

글 | 홍임정

24

금농 in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곳

재릉초등학교

글 | 김예슬·김예지·양지원·양지승·최우준

28

금농 in

오래된 공간들, 되살아나는 꿈들

사진으로 읽는 금농

글 | 양민숙

32

금농 in

금농마을에세이

손수건에 그린 차롱길 지도 한장

글 | 김병심

34

금농인게

세대별 놀이 대담

영 놀아수다

정리 | 이상숙

38

금농인게

선주민과 이주민과의 대화

나에게 금농은

진행 | 이윤영

42

금농인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

기르는 어업으로 변화하는 금농리 어촌계

글 | 김순일

44

금농인게

마을을 섬기는 섬세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

어울림으로 행복해지는 금농리 부녀회

글 | 김순일

46

금농인게

마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아들들

단합과 협동으로 더 단단해지는

금농리 청년회

글 | 김순일

48

금농스케치

은빛 모래 속 쪽빛바다를 품은 금농리

제10회 금농원담축제

글 | 편집부

50

금농스케치

2017년 마을행사 일정표

정리 | 편집부

51

금농스케치

2017년 꿈차롱작은도서관 일정표

정리 | 편집부

52

금농스케치

<금농인>을 도와주는 사람들

정리 | 편집부

54

금농스케치

금농리 조직도

제공 | 금농리

56

편집후기

금능원담

신희자

원담에 뭇 들었수다 파닥파닥 튀엄수다
헝저덜 나옵서 이신 구덕 다 ㄱ정으네
오널은 우뜨리 동네레 폴레 가사 허쿠다

원담에 걸어정 헤뜩 헤뜩 허는 뭇덜
순택아 헝저 거들라 고무신,사주마
오널도 원담에 돌아상 배력배력 햄꾸나

원담에 멸치 들었어요 파닥파닥 튀고있어요

얼른 나오세요 있는 바구니 다 들고서

오늘은 시골 동네로 팔러가야 하겠네요

원담에 걸려서 하얗게 뒤집어진 멸치

순덕아 빨리 거들어라 고무신 사줄테니

오늘도 원담에 돌아서서 소리소리 지르는구나

신희자 시인. 1940년 한림 생. 2009년 계간지 「연인」의 신인문학상으로 등단.
한수풀문학회 회원. 2016년 첫 시집 『바느질 매듭 풀듯』 발간.

금능인

금능리의 하모니 **금능인**을 발간하며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장 양민숙



며칠 전, 금능리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금능총각과 청주아가씨의 결혼식이었는데 마을회관이 떠들썩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7월의 가장 무더운 날씨였고, 가만 앉아만 있어도 땀을 줄줄 흘릴 만큼 불쾌지수가 너무도 높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하루 종일 피로연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분명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이들보다 더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쁜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피로연장 일감을 나누려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음식을 담거나 혹은 음식을 나르며 손님을 접대하거나, 차를 끓이는 그들의 손은 마치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져 나오는 하나의 공정처럼 정확하면서도 따듯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마을이라 생각합니다.

내 일, 네 일이 아닌 우리 일이라 생각하는 것. 너와 네가 아닌 우리가 되는 것.

따로따로 각자의 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한데 어울려서 하나의 하모니를 내는 오케스트라 같은 것, 그 자리에서 별로 띄지는 않지만, 없으면 하모니가 깨져 음악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조합.

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소망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이 아쉬워 또한 그렇게 변해가는 것들이 아까워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지켜내지 못한다면 함께 우리들의 기억 속에 간직하는 일이라도 해보자는 게 이 소식지의 첫 출발입니다.

어렸을 때 뛰어놀던 길은 점점 넓어졌고 여름날 큰 그늘이 되어주었던 팽나무는 사라졌습니다. 떼로 모여 다니면서 여름이면 햇볕에 그을리며 바다에서 놀았고, 겨울이면 따뜻한 굴속에서 정담을 나누던 모습도 이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여전히 금능리에서 시간의 흐름에 맞춰 금능리의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능인>이 금능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딘가 꽃아 두었다 볼썽 생각나면 꺼내 한 장 한 장 들추며 웃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장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또한 정주민과 이주민이라는 그 울타리를 깨고 모두 같은 금능리민으로서 함께 하는 소통의 장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힘든 상황임에도 원고료 하나 없이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 다녀주신 꿈차롱기자단, 어린이기자단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흔쾌히 취재에 응해주신 마을 분들에게도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또한 발간비가 모자라 고민할 때 선뜻 그 고민을 덜어주신 김성수이장님을 비롯한 마을단체장님들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보냅니다. 그리고 보니, 이 소식지는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의 소식지가 아닌, 우리 금능리민 모두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셈입니다.

앞으로도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은 마을 안에서 마을과 늘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나눠주는 공간으로, 지혜를 모으는 공간으로 마을을 다듬어가는 공간으로 마을의 한 풍경을 담당하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늘 든든한 파트너 홍임정, 이윤영 사서에게도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ㅅ:IN



재릉초등학교 5학년 양지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릉초등학교 5학년 양지원입니다.

여름이라 날씨가 무척 무덥지만, 저의 마음은 환하고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소식지인 <금능인> 1호가 창간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창간호의 기자가 되어서 재릉초등학교에 관한 것도 조사하고, 이렇게 축하의 글도 쓰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금능은 울레14코스여서 집 골목 사이사이에 시와 그림이 그려진 문패가 집집마다 달려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도 있어서 볼 때 마다 좋습니다. 또한 에메랄드빛 바다로 빛이 납니다. 앞으로 은빛 모래 속 쪽빛바다를 품은 금능리가 더욱 더 발전되고,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능인으로 삼행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능이라는 마을을 아십니까? / 능: 력있는 사람들이 넘치고 / 인: 안심 많은 금능마을로 놀러오세요. 금능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금능인>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능리장 김성수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마을입니다. 마을 안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소중한 이야기들을 한자리에 묶어 <금능인>이 탄생된다니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꿈차롱도서관은 마을 안에서 지역주민들의 잠재된 능력을 다시금 깨우치게 하며, 선주민과 이주민들간의 소통도 톡톡히 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해 왔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금능 알리기에에도 한 몫을 해 왔습니다.

이제 금능이라는 공간과 금능사람들의 모습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소식지 <금능인>이 다시 한 번 금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능인> 발간을 축하드리며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늘 애써주심에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한림읍장 **고경희**

제가 태어나고 자란 아름다운 금능마을 동네 이야기 <금능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창간호가 세상에 빛을 볼 수 있게 노력해주신 양민숙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능리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으뜸원 해변이 있으며, 석물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런 우리 고장 금능리에 지역 주민의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 마을소식지가 탄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제 겨우 처음 걸음마를 내딛었습니다. 걷다가 넘어지더라도 또 우뚝 일어서는 어린 아기같이 지금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 지역을 밝히는 빛나는 소식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

사랑하는 금능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능마을의 정다운 소식을 담아 주민들의 소식통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할 <금능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쁜 일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 일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우리네 삶의 다양한 일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행복의 씨앗은 큰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소식지에 수록된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금능마을의 공동체의식은 더욱 굳건해지리라 기대됩니다. 저는 금능마을 주민들이 <금능인> 소식지를 보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 의식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활동하면서 뜨거운 애향심도 굳게 뿌리 내리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금능인>이 금능마을의 패러다임을 담아내고, 금능인의 꿈과 변화를 주도하는 건강하고 바른 소식지로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금능마을의 무궁한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능인

바다는 나의 직장이우다
해녀 양윤열 할머니

글 | 이윤영



수줍은 소녀처럼 행복주름이 이마에 퍼져 있는 78세 양윤열 할머니는, 바다는 나의 직장이고, 해녀는 나의 천직이라며 금농마을에서 가장 물질을 오래한 할머니로 지금도 물 속은 땅 위에서 걷는 것처럼 막 쉽다고 한다.

3남매 낳아 물질하면서 대학교까지 졸업시키고, 그 손녀들도, 할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달라 매일 지꺼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낸다.

꿈을 꾀도 전복을 잡거나, 물에 드는 꿈만 꾸는 천상 타고난 해녀 양윤열 할머니의 해녀의 삶을 들여다본다.

이윤영 할머니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79세라고 들었는데, 나이에 비해 정말 정정해 보이세요?

양윤열 정정은 무슨! 하도 일만하고 발일만 해부난, 뵈려보라.

이윤영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양윤열 2남 1녀로 현재 집에 혼자 살고 있지.

큰아들은 수협 지도 상무이고, 자식 걱정은 안한다. 큰아들 손주 한명, 큰딸 손지는 표선 학교 선생으로 가고 작은 딸은 서울에 덕성여대 들어가서 건축공부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런 간 1등하고, 참 잘해. 아들 손지도 공부도 잘하고, 지꺼지쥬(기쁘다).

이윤영 할머니가 금농에서 가장 오래 물질한 할머니로 1등이어서 인터뷰 왔어요. 언제 물질 시작하셨나요?

양윤열 18살부터 물질 시작해서 58세까지 탕겼쥬. 육지를 충청도, 녹도리, 충남, 경북도 갔다 오고, 육지는 비행기로 가서 내리면 물질하는 데까지 차로 가서 작업하고 했쥬.

이윤영 할머니는 어떻게 물질하게 되었나요?

양윤열 집이 워낙 가난해 놓으난 어떻게게 아방(남편) 동네 사람들도 알지만 술만 먹영 탕기고 오죽흔 그 노래도 잘 지은지 몰라.

“물로 뱅뱅 돌아진 섬에 삼시 굶어 물질하여 한푼 두푼 모여놓니 남궁(남편) 뒤에 다 들어간다.” 그 노래만 부르명 탕겨났쥬.

남편이 경해부난 물질 안할 수도 없고 친청어명신디 아이들 맡겨놓

고 아이들 클 때까지 내가 나가게 되면 아이들은 불행시작, 내가 일찍 들어오면 행복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지내다 보니 아이들은 지금 다 크고 제주대학교에 3남매 물질하명 다 보냈쥬. 그러다가 58세에 영감 죽어 불고, 혼자서 죽으나 사나 혼자 고생을 많이 했쥬. 이제는 자식도 다 크고 혼난 행복하쥬.

이윤영 누가 물질을 배워줬나요? 물이 무섭지는 않으신지요?

양윤열 물이 무섭지는 않고 여남은(6살~) 살에 해엄치면서 스스로 물에 들어가서 돌멩이도 들고와 보고 보말도 잡아보면서 배웠쥬. 그땐 숨은 오래 못 참았주만은 금방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고 했쥬.

이윤영 물에서 뭐 잡을때가 제일 좋으세요?

양윤열 보말 잡을 때도 지꺼지고, 구쟁기나 전복홀 때가 제일 지꺼져(기쁘). 아이들이 제주시로 고등학교 다녀부난 차비라도 주젠 애썼쥬. 시에 동생집에 맡겨놓고 나는 물질행 번돈 학비 보내주곡 물질하니 제법 생활은 되더라. 잡는대로 다 풀앙 그거하당 보은 매기독 딱이라(남는 게 없다).

이윤영 숨 막혀서 죽은 고비는 없었는지요?

양윤열 물질하는 동안은 없었는데 하다구(머구리)할 때 호수 줄 딱 감겨 가지고 그때 하마터면 죽을 뻔 했쥬. 줄을 크게 한번 찢지, 죽을꺼 같다는 신호를 보내면 위에서 빨리 줄을 잡아 당겨주쥬. 꺼내보난 눈이 수경에 딱 쫓겨지난(끼어서) 얼굴이 부셔서랜(부었다) 그때가 죽어질 듯 고생했고, 나하고 같이 하던 할망은 죽었주게. 지금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주만 그때 내가 이렇게 죽을 뻔 혼건 가족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

이윤영 하다가가 뭔지요?

양윤열 해녀 물질 말고 산소통해서, 돈 많이 벌젠 물속에서 숨 쉬면서 하루종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며. 기계에서 컴퓨터이션만 해주면. 물속에서 물질하고 나면 막 피곤하여. 피곤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맛으로 마루 하나 부엌 하나 한 집에 살다가 하다구(머구리) 혼난 함석집을 하나 지으니까 10년 20년 되니 함석이니 물이 드는 거 아니? 그래서 그걸 뜯어 놓고 또 집을 짓게 되니까 빛이 하영 난거라,



그래서 내가 집을 지으라 해놓고 일본에 간거라. 일본에서 물질허레 간 건 아니고, 물질 버리고 돈 더 벌려고 일본에 간거라.

이윤영 아는 해녀 노래 있으세요?

양윤열 해녀노래 아는 건 없고,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서른 너머 날 날 적에 무슨 일로 나를 나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다 나 복이여” 경허명(그렇게 하면서) 헤엄쳐 가고 나는 물질 오래해도 귀도 안 아파. 늙어서 늙(다른 사람)들은 물질하지 말라 해도 그래도 아직은 건강하니까 해점주.

이윤영 딸, 며느리가 해녀 물질 배운다면 하면 하라고 하실건지요?

양윤열 물질 배우는 건 원하지 않아, 딸은 시에서 고등학교, 대학 댈치고 바로 직장 다니다가 시집가고, 지금은 웃음강의 강사 1등이라 부난, 물질 배울 시간도 없주. 서울도 강의하러 댕겨오국 대학원도 입학해서 계속 공부함주.

이윤영 지금 물질 배우는 사람들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양윤열 금능에 젊은 해녀 3-4명이 배운다는 소식 듣고 더 많이 배우러 왔으면 좋겠다. 배우러 오는 해녀한테 박수쳐 주면서 “아이고 너네 잘 왔써, 열심히 배워보라! 하면서 박수치며 말해주는 사람은 나 뿐이라면서, 나 옛날 사람으로 너네 배운댄 하난 지껴져서(기뻐서) 여기 가면 짚은 디(깊은 데), 얇은 디(얕은 데) 그라우국(말해주고) 구살(성계)도 한디 그라우고 싶어진다.

이윤영 물질 하면서 웃긴 에피소드 없나요?

양윤열 석주 어머이랑 같이 물질 했써, 옛날 젊을 때에 난 재수가 좋아 전복을 많이 잡아 석주어머은 아무 것도 못 잡아. 그러면 솔짜기(물래) 전복 하나 줘똥(주고) 도망갔주. 물속에서 올라와서 태왁 베려보문(봐보면) 전복이시문 그 형님이 “아이고 애야, 전복 주는 사람은 느 밖에 없다. 느 밖에 없다” 하면서 그 때도 친했쥬만은 지금도 막 친하다.

유육이 삼촌도 숨이 길지만 잘못 잡더라, 난 물속에 가보면 그 추록(그렇게) 잘 보여, 바다를 태웠던 거라, 가만 생각해 보민 전복도 막 하영(많이) 허국 영 댕기당 뭐 해집디가? 허은 난 아무 것도 안했써,

배려보문(봐보면) 구쟁기만 몇 개 동글러려(나뒹군다). 난 전복 3-4개 허민 1개 나똥 가고(놔두고 가고), 이 집 지을 때 그 공으로 막걸리한 허벅 해 와서라게, 직접 담아서 이녁양으로(자기혼자) 막걸리 좀 찌다(찜어다) 갈아당 오메기영 내왕(내어서) 가져오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가! 지금 생각하면 막 고맙다.

이윤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나요?

양윤열 살아보난 또 나에게 베풀어준 사람은 어신거 다향, 나가 인간의 덕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도 내가 건강한 것도 복 받아 진거 다향, 아픈 데가 어시난(없으니) 숨이 좀 짧아서 그렇지 천상해녀, 또 태어나도 해녀해야지 생각이 들고, 막 바당에만 가고정훈다(가고 싶다). 꿈에도 바당에서 똥 캐는 것만 봐져.

숙갱이 어머은(익순이 각시) 나랑 물질을 10년 댕겨서 오늘이사(오늘은) 내가 허꿈(좀) 더 허쥬기(해야지) 속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물에 들고 보면 선자 따라갈 사람은 어실꺼여 어실꺼여 그러더라고! 양윤열은 호척이름이고, 선자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 일본이름은 여시코라 님쥬게. 밭일 하다가 뛰어와서 물에 가고 아주 복잡하게 살았써.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이윤영 해녀복 직접 장만하세요?

양윤열 옷은 옛날엔 우리가 해났쥬만은(장만했지만) 이젠 제주도에서 올해엔 공항에 30벌 보내서 가서 또 맞췄써, 재작년에 옷을 했는데도 자꾸 물에 드난 혈영 찢어지고 어똥허코 허당보난 또 공항에서 옷 주고 해서 또 댕겨야지. 겨울은 추워서 안 댕이고, 태왁도 두 개씩 자기가 만들어 났지. 해녀라면 물속에서 빨라야 되고 욕심도 허꿈 이서사(있어야) 되고, 욕심 없으면 못해 숨은 가져갔다 가져왔다 허쥬만은(하지만은) 숨 끊어질 때까지 하당 죽젠! 이녁(자기) 숨 있는 데 까지만, 하다가 물위로 올라왕 호이 호이 숨비소리 숨쉬고, 또 물속에 들어가고 하는데, 구쟁기는 물속에 가만 쉬난(있지만) 전복은 건드렸다 하면 도망가부니 전복하고 문어는 한번에 안하면 다 도망가분다. 문어 봐지면 창둥이(머리)를 호맹이(호미)로 팍팍 찢러멍 죽여. 대맹이(머리)만 찢르면 죽영(죽어서) 올라온다. 재수 좋으면 문어도 하영(많이) 해오국 물질 제일 오래홀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가 타고 났쥬.





금능사



이윤영 물속에서 불일은 어떻게 보세요?

양윤열 스폰지옷 내리고 물속에서 옷 올렸다 내렸다 해서 불일 봄쥬 그냥 옷에 싸면 안 된다, 경했당(그랬다간) 온 몸에 다 퍼져 죽쥬. 지금은 죽어 불어쥬만은 지웅이 각시랜 혼 사람은 구쟁기 막 욕심병 물속에서 똥을 싼거라, 머릿까지 똥이 올라왔던 햄쥬. 내가 스폰지 옷을 벗겨주는데 똥내가 얼마나 나는지 물 지쳐주고, 똥이 드럭드럭 이거 뭐냐, 혼난 냄새가 팡팡 등에 똥이 덕지덕지 붙어있었쥬. 물속에서 똥이 거꾸로 났다. 똥 피똥 똥독에 죽는거여. 다시는 영 하지 마라, 고랐쥬만은, 그 이후 몸이 간지러워 죽을 뻔했쥬 햄쥬. 지금 넘어간 일 생각하면 웃겨.

이윤영 삶의 철학이 있다면요?

양윤열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부지런히 노력을 안하면 이 아이들은 거지되쥬. 정신을 가지고 남편이야 술을 먹고 놀러가든지 말든지 일을 경(그렇게) 안혼쥬 혼더라고 술먹영 꼬부라지른 일해져? 나가는 술만 먹어 놓으난 경혼난 내가 이 사람을 믿었당 안되쥬.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열심히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람을 만들자 이런 정신을 가져지더라니까 처음부터 계난 그 사람 끼지 않고, 나 혼자 노력을 해진거지. 싸움도 많이 혼고게. 술 먹지 말랜도 혼고 울기도 많이 울고 막내는 내가 신랑 때리쥬 혼민 죽은 놈 초등5학년 때 엄마 때리지만 막으멍 해놔쥬. 나도 부애 나민(화가 나면) 술 먹으쥬 악살하고게(소리지르고) 해뒀쥬기게. 아이고 기가 막혀, 넘어간(지나간 세월) 생각하민 이.

이윤영 다시 태어나도 해녀일을 하고 싶은신지요?

양윤열 내가 물질하면서 바다를 직장으로 생각해진거쥬. 지금도 해엄치는 사람하고는 떨어지지는 않아, 하하하. 알고 보민 내가 노력한 것 만큼 돌아오니까 삶이라는 것이 이거다 그 정신 갖고 힘이 있는 데까지 도와서 자식들을 꼭 성공을 만들자고 하는 맘은 쥬쥬. 아직 성공시키지는 못 했쥬만은.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하고, 또 없어도 누가 뭘랜 해도 마음을 비우니까 비워서 그자(그저) 막 마음이 편안하여 마음을 비우난 나쁜 생각을 혼지 말곡 항상 좋은 생각만 혼고 아무래도 마음이 편안하대게 남에게도 베풀고 조금이라도 베풀명 살쥬 해지고, 없어놓으니까 마음은 쥬도(있어도) 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기부는 못 햄쥬만은 나가 살쥬 혼난. ‘바당은 나에 직장이고 그 바당은 내 눈에만 많이 보였던 보물들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니까. 물에 가도 편안한 마음 안 가지민 안 되여. 히여지민 혼고 못혼민 말곡 해야지 나 힘 달는 곳까지 열심을 하쥬다는 정신으로 가져야지 막 무조건 혼당은 죽쥬, 우리 큰어머니 물질 가지 많서양, 나이 한 사람은 얼마 죽엄수당 혼명 가지 못하게 혼면 나 속으로만 죽는 사람은 욕심 있으니까 죽엄쥬. 남보다 더 혼쥬 욕심부리고 혼당은 천천히 나이가 드니까 이녁에 분수에 맞게 물에 것 욕심부렁 혼당은 안 되여. 영(하나도) 욕심 어서도 안되쥬만은 적당히 이녁(자기) 몸에 분수에 맞게 해야지.

이윤영 금능에서 물질 가장 오래 할수 있었던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양윤열 삶이 역사이고, 건강하니까, 아이들이 착하고 어머니 불쌍하게 생각하고 뭐혼민 예예. 그자 시키는 대로 해주니 불평 불만을 하는 자식들도 없고 그러니 일을 하면서도 즐거워. 손지들도 아이들 이 착하고 큰 손지 선생으로 간 것은 월급 탈 때마다 나한테 5만원씩 용돈 보내고 잘도 아까워. 서울 간 손녀도 경(그렇게) 착한지 몰라, 전화 오면 “할머니 일 많지?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할머니가 일 안 할 텐데, 미짱 너무 맛있어, 이거 키우느라고 고생했어” 하는 손지라, 나보다는 “아빠가 더 고생이지” 혼민 “할머니가 굴 만드느라 고생했어, 잘 먹을게.” 학생들신디 베퍼신디(보였는데) 우리 미짱이 맛있던 학교에 가서 맛 뵈우난(보여주니) 살 수 있냐고 혼난 풀아주곡 막 기분이 좋아, 착하고 똑똑해 놓으난. 하하하.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바다는 무덤으로 변하고, 욕망을 다스리면 아낌없이 주는 어머니의 품이 된다고 한다.

온종일 숨을 참은 대가가 이승의 밥이 되고, 남편의 술이 되고, 자식들의 공책과 연필이 되었던 해녀의 삶이다. 거친 파도를 넘으며 바다와 함께 울고 웃었던 양윤열 할머니처럼 굳게 늙고 싶다. **A·IN**





금능인

36년 금능리의 땅을 지켜온 농업을 나누는 농부 임철호

글 | 김순일





금농사



역경을 이겨낸 새농민

제주의 다양한 품습 중에 ‘결혼을 3일간 치르는 혼례품습’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굉장히 독특한 문화이지만 최근에는 ‘2일 잔치’ 또는 ‘당일 잔치’로 많이 축소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난 해 10월에 금농리 마을회관에서 오랜만에 3일간 치러지는 ‘가문잔치’가 열렸다. 금농리의 대표 농부인 임철호 농부의 둘째 딸이 그 주인공이었다. 마을의 부녀회와 생활개선회가 손을 joined 붙이고 임철호 농부의 둘째 딸의 결혼식을 도와서 1,500명의 손님이 다녀가는 마을 잔치 같은 결혼식이 치뤄졌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했다. 이렇게 임철호 농부의 딸 결혼식에 마을과 방송국까지 들썩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35년간 진솔하게 금농리의 땅을 지키며 농사를 짓고, 이웃과 농업을 나누고 협동했던 그와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그의 고향인 금농리를 농사로 35년간 지켜온 그이지만 그 삶이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86년에 농민후계자로 선정되었으나 농사를 지으며 많은 실패를 거듭하여 농업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새벽과 밤에는 농사일을 하고, 낮에는 다른 일을 찾아 직장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이 거듭되면서 차츰 농사는 안정되고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2014년 3월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의 우수농업인 부부에게 수여하는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의 성공 노하우

현재 그는 마늘 1.2만평과 브로콜리 1.2만평, 그리고 콜라비, 쪽파 등의 밭작물을 비롯하여, 한라봉 등 총 7가지 감귤까지 모두

4.5만평의 과수와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한라봉은 당도가 좋아서 수확을 하기 전에 판매가 마감되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작물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만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그가 성공적인 농업 경영의 첫째 노하우로 꼽는 것은 영농일지이다. “그때 그때 작물의 성장과정과 수확 상황은 물론이고 날씨, 판매 가격까지 모든 농사와 관련된 일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쌓아가다 보면 농사의 모든 비밀이 이 영농일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작물과 품종의 선정, 재배량, 혼합액체비료 제조방법, 출하시기와 가격까지 과거의 영농일지를 보면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그의 성공 노하우는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날씨의 변화가 매우 크고, 이상 기상 현상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 지난해 겨울처럼 날씨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 작물이 재배가 잘되어서 생산량이 많아져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반드시 작은 면적이라도 재배하는 품종을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꿈을 펼치는 무대 금농리

그가 19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의 아버지가 홀로 2남 4녀의 자녀를 키웠다. 제주도 말로 ‘자식이 홀어명 밑에서는 잘 커도, 홀아방 밑에서는 잘 못 크다’고 한다. 그 만큼 제주에서 홀 아버지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지을 땅이 적고 척박한 금농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농업을 하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온 그가 지금은 3자녀를

장성하게 키워서, 자랑스런 아버지가 된 곳이 또한 금농리이다. 세 자녀 중 두 딸은 이미 결혼해서 아버지의 지척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금농리는 그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농업이라는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의 터전이 된 곳이고 그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연극배우가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곳이 연극무대라면, 57세의 임철호 농부에게 금농리의 땅은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는 무대 일 것이다.

농업을 나누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제주철호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2014년 새농민상을 수상한 그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있다. 그것은 마을의 주민들과 후배들에게 성공적인 농업을 위한 교육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금농리의 다양한 토양에서 많은 품종을 성공적으로 재배해 온 자신만의 노하우와 기술 그리고 장비를 이웃과 후배들에게 먼저 나눔으로써 우리마을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주민 모두가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협동하고 화합하는 마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작목반을 구성하여서 ‘금농 모살밭 고구마’를 공동으로 재배하고 운영하면서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이제는 농사를 혼자 짓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성공적인 농업의 노하우는 이제 자신만 가지고 있다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에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 그 성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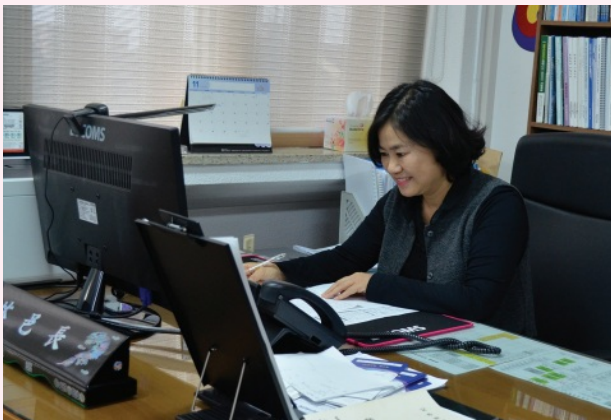




금농인

한림읍 첫 여성읍장과의 솔직하고 즐거운 만남 고경희 한림읍장

글 | 이상숙





금능서



한림읍에 최초로 여성읍장이 탄생했다. 필자는 금능리 출신인 고경희 읍장을 만나 솔직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첫 대면부터 느껴졌던 편안하고 열정적인 모습이 인터뷰 내내 고경희 읍장의 트레이드마크처럼 각인되었던 시간이었다.

이상숙 먼저,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성 최초로 한림읍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경희 읍장(이하 고경희) 감사합니다. 좀 쑥스럽네요.

이상숙 한림읍 여성 읍장이 되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고경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감을 길게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예전에 조천읍으로 발령받아 근무할 때 결심한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림읍에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7급으로 잠깐 근무 후 조천읍으로 6급 계장 발령을 받아 3년동안 근무하면서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았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당시 아쉬움이 하나 있었는데 고향인 한림에서 기회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한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는 읍장으로서 봉사자의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상숙 금능에서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과 가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고경희 재릉초, 한림여중,한림여고를 졸업했어요. 초등학교때 2년 동안 잠깐 부산에서 지내다 온 것 외엔 계속 금능에서 살았죠. 우리 마을은 정이 살아있고 마을사람들간 유대관계가 돈독해요. 따뜻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원담 바로옆이 저희 집이었는데, 지금도 어머님께서 그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올해 92세이신 어머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손주들 양육을 도맡아주셔서 제가 일할 수 있었지요.언니를 비롯해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이상숙 사회생활을 어떤 계기로 어떤일부터 시작하셨는지, 해오신 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경희 고교 졸업하기전 삼성생명에 입사한 것을 시작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대정으로 발령을 받아서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제가 바라던 직장과는 다르다고 생각되어서 1년반만에 퇴사를 하고 그 후 1년동안 여러번 취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86년 5월 9급 공무원에 임용되

었고 그 후 여러 기관에서 재정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어요.그 경험으로 세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여러 이유로 세금에 대한 많은 주민들의 거부감이랄까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들 그러겠지만요. 주민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업무에서 감정적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징수율 1위, 세입세출에 대한 최초 전산화 시도, 제주시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행하는 조기집행 1위 달성 등이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천읍 주민자치계장(주무계장) 임명도 그당시 여성으로서 최초였고요. 2016년 7월에 한림읍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상숙 인구유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요즘, 선주민과 이주민간 화합을 위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요?

고경희 각 마을 부녀회와 연계해서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과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각 마을 단위의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선주민들이 먼저 포용과 화합의 손을 내미는 게 우선일 듯해요. 제 주도만의 특성은 키우고 살리되 개선되어야 할 것들은 분명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 한림읍을 위해 중점적으로 해나가실 일은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고경희 지역 최대 현안인 축산 관련 악취 해결이 급선무지요. 이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읍민 단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고, 한림읍 출신의 신뢰받을 수 있는 리더로서 인정받도록 제 할 역할을 다할 거고요.

이상숙 한림읍 읍장으로서의 다짐을 듣고 싶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경희 개인적으로는 고집도 세고 확실한 성격입니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덕망있는 지역의 리더로 남고 싶고, 직원들을 배려하고 후배들에게 인정받고 귀감이 될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우리 한림읍 직원들이 유능하고 성실하고 선텡니다. 저에겐 축복이고 감사한 부분이지요.

이상숙 끝으로 금능 소식지 발간에 대한 격려와 축하의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경희 소식지 발간에 대해 금능을 아끼고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서 뿌듯하고 기쁩니다. 소통과 화합의 매개체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양민숙 관장님을 필두로 열성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많은 주민들이 힘을 합해 꿈차롱도서관이 문화적이며 생활밀착형 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IN**





금능인

금능리 천신제 봉행
능향원

글 | 차영옥





금능 in



정월(正月·음력 1월을 달리 부르는 말)대보름에 주민의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천신제가 열린다.

금능리는 해안가 마을이다 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제를 봉행하고 있다. 전에는 본향당, 영감당, 포제단이 흩어져 있었으나, 1986년 한곳에 모아 '능향원'이라 명하였다.

제주의 마을제는 신들의 천국이라 불릴만한 정도로 성대하고 엄격하다. 천신제 봉행일이 다가오면 제관(22명)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많다. 지금은 2박 3일로 간소화 되었지만 예전에는 일주일 동안 능향원에 입제해서 봉행일까지 숙박을 함께 하였다. 마을제가 다가오면 마을 주민들은 몸을 깨끗이 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마을사람 스스로가 부정하거나 비린사람은 출입을 하지 않는다.

제물은 포제단에 생것으로 올리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제물을 만지는 정사관 선정에도 많은 정성을 기울인다. 삼헌관 또한 나이를 보아서 선정한다. 하지만 마을대표인 이장이 초헌관으로 선정되어 진행하는 것이 관계적이다. 마을제 준비가 다 되면 천신제 지내기전에 본향 삼헌관과 내집사1인은 본향당과 할르방당에 제를 먼저 지낸다. 마을제는 정월 대보름 되는 날 오전 12시경에 지낸다. 금줄은 능향원 입구에 치고 여자의 출입을 금하지는 않으며, 제를 지내기 전 제

관들은 몸을 정갈하게 한 후, 제에 참여를 한다.

능향원 주위는 용암석의 돌무더기와 수풀로 덮인 '곶자왓'지형이다. 마을 청년회,부녀회에서 일년에 몇 번의 풀베기 등 정화작업을 해서 능향원 숲과 제당 관리는 잘되고 있다. 해마다 신당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능향원을 방문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개방 시간을 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마을주민들은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면 능향원을 찾아 신들에게 빌고 간다. 이렇듯 금능리 주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는 능향원을 미신이라고만 여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제주전통문화라고 여겨진다.

제주에서는 예부터 새해 정월을 맞아 처음으로 맞는 정일(丁日) 또는 해일(亥日)에 유교식으로 신에게 세배하는 마을제를 지내왔다. 마을마다 모시는 신의 이름은 '포신', '산신', '해신', '토신'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명칭 역시 포제, 마을제, 동제(洞祭), 해신제, 토신제, 당제, 풍어제 등으로 불리며 전승되고 있다. 마을제를 지내는 날짜도 마을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금능리 천신제를 통해 옛 것을 기리는 미풍양속을 이어가고 능향원이 마을의 평화와 화목의 기도처로 오래토록 남아있기를 기대해 본다.

▲·IN





금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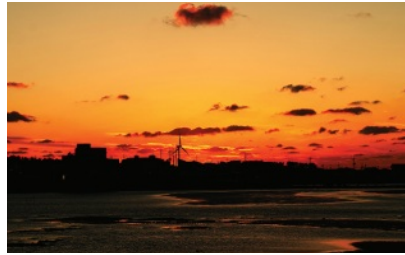
금능해변의 화려한 변신 선진터

글 | 김순일





금능 in



에메랄드 빛을 품고 있는 금능으뜸해변은 바다물의 조수에 따라, 태양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구름의 모양에 따라, 바람의 세기에 따라 그 빛과 모양이 하루도 같은 날이 없다. 이런 금능바다는 물고기를 잡는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터이기도 했고, 이제는 금능리와 한림읍을 넘어 한해 23만명이 찾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이다.

금능리는 한림읍 내에서 주민들의 단합이 가장 잘되기로 손꼽히는 마을이다. 이렇게 단합이 잘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과거 '선진'을 통해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선진이란 금능해변에 물이 들어오면 마을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200m가 넘는 그물을 펼쳐놓고 양쪽으로 함께 잡아당겨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말한다. 과거에는 선진을 통해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마을 주민들이 100명이상이 함께 참여해서 충분히 물고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하니 선진이 마을 주민들의 결속력을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인 것은 확실하다. 지금도 선진터라고 불리우는 금능해변에서는 금능원담축제, 마을체육대회, 원담장터 등 마을의 공동의 행사들이 진행되고 마을의 단합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또 금능으뜸해변에는 썰물이 되어 물이 빠지면 모래밭 곳곳에 조개와 모래게들이 숨어 산다. 과거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모래밭에 호미를 들고 모래를 일구어 조개를 잡는 주민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지금도 피서철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한여름 피약별을 마다하고 조개잡이에 푹 빠져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도 한다. 또 물이 들면 해변가에서 낚시로 따치나 모살치 같은 잔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올 여름에는 금능해변에서 낚시로 잡은 물고기로 물

회를 만들어 판매해서 많은 인기를 얻은 식당까지 있었다.

금능해변은 아이들에게 가장 신나는 놀이터이다. 과거에 금능리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던져놓고 모래밭과 바위틈 사이에서 조개와 모래게를 잡으며 날이 저물도록 놀았던 가장 좋은 놀이터였다. 금능해변은 밀물이 되어서 물이 차도 깊이가 깊지 않고 파도가 잔잔해서 아이들이 안전에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영장 이 되어 준다 또 썰물이 되면 넓은 모래밭이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장이 되기도 한다.

금능해변은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에게도 신나는 놀이터이자 문화교류의 공간이다. 최근에 금능해변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면서 한해 23만명이 다녀가는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해수욕장으로 변신하고 있고 또 다양한 축제와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방문도 많아졌다. 마을을 대표하는 금능원담축제를 통해서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과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물위에서 행글라이딩을 이용해서 보드를 타는 '전국 카이트보딩&패들보딩 페스티벌'이 금능해변에서 개최되면서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에메랄드 빛 바다와 시원하게 뻗은 야자수,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결혼 사진을 촬영하는 아름다운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예비신혼부부들이 금능바다에서 추억을 사진에 담아가고 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되고 금능해변만의 아름다움이 알려지면서 금능해변에서는 춤과 노래,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해지는 어른들의 즐거운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IN**



금능인

꿈차롱 도서관과 함께하는 신나는 여름나기

제8회
금능연담
축제

집앞으로
다가가는
작은도서관

금능꿈차롱
작은도서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글 | 홍임정



금능 in



2017년 12월 23일이면 금능곰차롱작은도서관이 생긴 지 딱 8년째가 된다. 해마다 이 날엔 <곰차롱 겨울이야기>라는 이름으로 개관 기념행사를 가졌으며, 올해도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여덟 번째의 겨울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금능리의 여러 의미 있는 장소 중의 하나로 금능곰차롱작은도서관을 소개하는 데 있어, 서두부터 이렇게 햇수를 셈해보는 이유는 이곳의 사서로 일하고 있는 나부터가 우선 ‘벌써 팔 년째라니...’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금능곰차롱작은도서관이 개관한 이듬해 여름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으니 나 역시 7년하고도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서관과 함께 해 왔다. 그리 길지 않은 근무시간이지만, 햇빛이 황금색으로 부드러워지다가 바다 이불 아래 포근하게 덮여 잠이 드는 시간들을 2,370여 일 동안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맞았다. 이만큼의 일상을 채웠던 시간들이라면 금능곰차롱작은도서관은 내게 금능리의 실제 풍경일 뿐 아니라 밝은 노란색의 마음의 풍경으로도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 같다.

금능곰차롱작은도서관의 사서로 근무하면서 그동안 도서관을 소개하는 글을 몇 번 썼었다. 그때마다 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했던 활동들, 이뤄낸 성과들을 적어 내려가곤 했는데(금능곰차롱작은도서관은 제주도내의 작은 도서관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기로 유명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활동들을 적으려면 지면을 꽤 할애해야 한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들 보다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를테면 사람 이야기다.

내게는 금능곰차롱작은도서관과 함께 지낸 7년 여의 나날들 중에서 유난히 마음에 각인된 사진 같은 장면이 몇 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은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도서관 풍경사진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빛이 한 컷 한 컷 마음의 잔상으로 남은 인물사진 같은 장면들인데, 그 중에서 두어 장 꺼내보는 것으로 금능곰차롱작은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대신 하려고 한다.

우선 첫 번째로 꺼내보는 사진은 금능곰차롱작은도서관의 관장이자 시인이며 농부인 양민숙 관장님의 사진이다. 장면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선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찍힌 날짜는 ‘2013. 08. 어느

날’로 매미울음조차 뜨겁게 들리는 팔월 한여름의 땀별이 내리쬘던 한낮이었다. 관장님의 차림새는 밭에서 김을 매던 중에 그대로 나온, 즉 혈령한 갈옷 티셔츠와 갈옷 작업바지에 머릿수건을 두른 차림이었고, 유난히 새까맣진 팔뚝이 눈에 띄었다. 이 날 관장님과 나는 관장님이 밭에서 몰고 온 트럭에 200여권의 책 묶음을 싣고 금능리 뒷마늘에 대규모로 세워진 라온프라이빗타운으로 향했었다. 위압적인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는 정문을 지나 상들리에가 번쩍이는 현관 앞에 트럭을 세운 후, 우리는 둘 다 양손에 책 묶음을 하나씩 들고는 라온프라이빗타운에서 마련해준 지하1층의 “금능곰차롱작은도서관 분관”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갔다. ‘분관’이라고는 하지만 지하1층 안내데스크 옆쪽에 놓인 네 칸짜리 책장이 전부인 그 공간으로 무거운 책 묶음을 양손에 들고 내려가면서 양민숙 관장님은 뒤따라 내려가던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홍 선생님, 이 크고 넓은 건물에 책 한 권이 없어요. 이곳에 우리 도서관의 책을 놓게 되어 참 기뻐요” 라고 말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는데, 순간 그 모습이 내 마음에 한 컷 찍혔다. 밭을 일구던 갈옷 차림이어서 그랬는지,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흐르던 땀이 유난히 반짝거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농사용 트럭에 책을 한 아름 싣고 가 매끈한 대리석의 건물 로비를 가로지르던 우리의 행동 자체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양 손에 책 묶음을 든 채 환하게 웃던 관장님의 모습이 2013년 여름의 한 장면으로 파란하늘에 솟아오른 흰 뭉게구름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다.

두 번째로 꺼내보는 사진은 세 아이의 엄마이자 도서관 애용자인 이은미 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스름이 지는 저녁 도서관 안에서 낮게 울려 퍼지던 그녀의 목소리가 담긴 사진이다. 사진의 날짜는 ‘2014. 06. 어느 날’로 숨을 들이마시면 바닷내음이 온 몸으로 퍼지던, 물기 어린 공기가 따듯하게 부풀어 올라 터질 것 같던 어느 늦은 봄날의 저녁이었다. 이 날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아트리치디딤돌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던 <문패가 있는 우리마을> 프로젝트 중 ‘시낭송교실’의 마지막 수업으로 ‘시낭송





금능인



콘서트'가 있는 날이었다. 멀리 비양도가 보이는 창문 앞 공간을 무대로 하여 소박하게 진행된 콘서트에는 수업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한사람씩 모두 나와 노란 병아리 같은 목소리로 동시를 낭송해 부드러운 병아리 털로 깃가를 간질이는 듯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었다. 나 역시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딱딱해져 있었던 깃가를 스르르 녹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아이들의 등 뒤의 창문으로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병아리같이 황금빛이었던 하늘에 아이들의 볼처럼 부드러운 분홍빛이 어리다, 몽고반점 같이 푸른 어둠이 번지면서, 어느새 보이지 않게 된 수평선 위로 고기잡이배들의 불빛이 점점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 장면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였다. 어느새 어둑어둑해진 도서관 안의 무대에 학부형 참가자로 이은미 씨가 올랐다(당시 기억으로 실내가 어두워졌음에도 불을 켜지 않았는데 아마도 자연스럽게 찾아온 어둠의 아늑함을 깨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 같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울지 마라” 라고 시의 첫 구절을 마지막히 읊었다. 그리고 이어지던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그때 나는 그녀의 진짜 목소리를 처음 들은 것 같았다. “산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라는 마지막 구절이 끝났을 때, 나는 그녀의 목소리의 깊은 울림과 어둠 속에서 빛나던 그녀의 눈빛 때문에 왈칵 눈물이 나올 뻔했다. 언제 보아도 그녀는 세 아이를 씩씩하게 통솔하는 모습이지만 그때의 낭송 이후로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인생이 우리 곁을 지나갈 때 만드는 외로움에 대해, 그 깊은 목소리에 대해 문득 생각에 잠기게 된다.

마지막으로 꺼내보는 사진은 도서관을 제집처럼 드나들던 아이 해련이의 사진이다. 해련이는 도서관에 자주 왔었던 이라면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도서관 아이로, 지금은 중학생이 되어 더 재미있고 신나는 게 많은지 도서관에 발길을 안 한지는 조금 되었지만 가끔 동

네에서 마주치면 제일 반갑다. 요즘은 사춘기가 되었는지 얼굴에 여드름이 송송 돌아있는 걸 보았다. 그래도 여전히 학교 안 가는 날이면 꿈무늬에 동네 꼬마들을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사춘기가 아직은 몸에만 온 것 같다.

내가 도서관에 출근한 첫 날부터 시작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거의 매일 봐왔으니 해련이에 대한 이야깃거리는 많고 많지만 여기서 한 장 꺼내보는 사진은 도서관 바닥에 깔린 카펫 위에 나와 함께 나란히 누워 있었던 어느 초여름의 장면이다. 사진에 찍힌 날짜는 ‘2013. 05. 어느 날’이며, 2주간의 병가를 마치고 출근한 첫 날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유산한 후 집에서 얼마간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시작된 일상이었다.

2주 만에 도서관에 다시 출근해 도서관 문을 열고 썰렁한 실내로 들어가자 곧 해련이도 들어왔다. 그동안 밀렸던 일들을 마친 뒤, 몸이 피곤해져 도서관 카펫 위에 누웠더니 해련이가 곧 내 옆에 와 누웠다. 그런데 해련이는 평소답지 않게 아무런 말이 없었고, 우리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잠자코 누워 있었다. 그때 창밖에서 바람이 살랑이며 불어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옆에 누운 해련이의 조그만 숨소리와 도서관 안에 가득 찼던 고요한 침묵에서 알 수 없는 위로를 느꼈고, 이 장면 역시 내게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보니 모두 조그만 사진들, 짧은 장면들, 사소한 순간들이다. 한 묶음의 책, 한 구절의 시, 꼬마의 조그만 숨소리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의 진솔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의 서쪽 바닷가 마을의 올레가 지나가는 곳에 약간은 낡은 모습인 채로 서 있는,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 하지만 그 안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필름이 있어 오늘도 누군가의 환한 웃음을, 깊은 목소리를, 고요한 위로를, 혹은 누군가의 사진첩에 남을 만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장면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IN**



금능 in



- 1 |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 2 | 금능꿈차롱도서관의 열혈애용자 문혜련 학생
- 3 |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실내
- 4 |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라온 분관
- 5 |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전경
- 6 | 시낭송 콘서트에서 시를 낭송하는 이은미 씨
- 7 | 2015년 금능원담축제에 참가한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 8 | 시낭송 콘서트를 마친 후 단체 사진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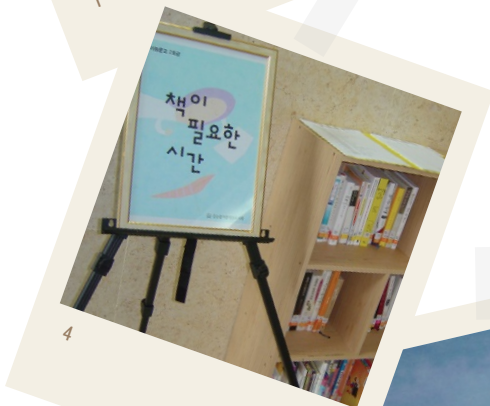
1



2



3



4



6



5



7



8





금농인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곳 재릉초등학교

글 | 김예슬 · 김예지 · 양지원 · 양지승 · 최우준

오케스트라가 있는 아름다운 우리학교

재릉초등학교 5학년 김예지

천연잔디와 키 큰 야자수가 어우러진 우리학교에는 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학교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예비단원이라고 하여 난타를 배우며 리듬감을 익히고, 3학년이 되면 졸업할 때까지 정단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16년 11월에 열린 JIBS 음악콩쿠르에서는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8월에는 U-13 제주국제관악제 관악콩쿠르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연습에 힘들기도 하였지만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맘껏 뽐내고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스트라가 있는 아름다운 재릉초등학교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마음씨 착한 재릉초등학교 친구들

재릉초등학교 5학년 김예슬

우리학교에는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마음씨 착한 친구들이 제일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재릉초등학교 친구들은 왕따를 시키거나 당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학교들은 왕따 때문에 상처받는 친구들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학교 친구들은 같이 노는 친구가 없으면 함께 놀아줍니다.

두번째 우리학교 친구들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가끔은 화내고 싸우기도 하지만 폭력을 쓰거나 나쁜 말을 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세번째 우리학교 친구들은 전학생들에게 친절합니다. 저도 1학때 경기도에서 이곳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먼저 다가와서 놀아주고 친절하게 대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친구들이 육지에서 전학을 왔는데 모두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재릉초등학교 친구들이 착하고 친절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능 in



꿈끼탐색주간을 맞이하여 재능진로캠프 열려

재릉초등학교 5학년 양지원

2017년 5월 12일(금)부터 5월 13일(토)까지 꿈끼탐색주간을 맞이하여 4~6학년을 대상으로 재능진로캠프를 실시하였다.

조를 짜서 저녁밥도 지어먹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달빛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해에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원래는 운동장 잔디에서 텐트 치고 자는 계획을 변경해 교실 속영으로 대체했다.

다음날에는 <기발한 직업명함 만들기>, <롤링페이퍼>, <내가 만든 직업> 등의 진로교육을 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한 좋은 경험이었다. 진로교육과 인성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 등 바른 품성을 기르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학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재릉초등학교 4학년 양지승

송옥렬 교장 선생님 우리학교 대장으로 친절합니다.

정호경 교감 선생님 멋쟁이시고, 인사를 잘 받아 주십니다.

1-1반 현은희 선생님 친절하십니다.

1-2반 양보아 선생님 보건 담당이십니다.

2-1반 양혜경 선생님 교육평가를 합니다.

2-2반 양희연 선생님 도서관런 일을 담당합니다.

3-1반 김명주 선생님 학부모 지원 사업을 담당합니다.

3-2반 한승환 선생님 과학을 담당합니다.

4-1반 김효정 선생님 잘 웃어주십니다.

4-2반 강유진 선생님 방송을 담당합니다.

5학년 오지혜 선생님 성교육을 담당입니다.

6학년 김동현 선생님 티볼을 가르쳐 줍니다.

남상섭 교무부장 선생님 방과후를 관리합니다.

문기혁 안전생활진로부장 아이들의 안전을 전담합니다.

김지혜 영양사 선생님 급식 식단을 맛있게 짜 주십니다.

김용환 선생님 씨름코치입니다.

1학년 돌봄 선생님 이윤영 아이들을 재미있게 돌봐주십니다.

2학년 돌봄 선생님 추영미 아이들을 귀가전에 지켜줍니다.

이방형 지킴이 선생님 정문에서 차를 막고, 안전한 등교를 책임 집니다.

유치원 고정숙 선생님 유치원 아이들을 돌봐주십니다.

유치원 방과후 고은지 선생님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 주십니다.

행정실장 이지원 선생님 우리학교 살림을 책임 집니다.

주무관 이길명 선생님 행정실장님을 도와줍니다.

주무관 김병찬 선생님 우리 학교 시설물을 관리해줍니다.

조리사 최선미 선생님 맛있는 급식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조리원 박기숙 선생님 급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특수교육실무원 이현주 선생님 특수아를 돌봐주십니다.

환경도우미 고명선 선생님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니다.

방과후코디 김정혜 선생님 방과 후 관련 업무를 보조해 주십니다.





금능인



우리학교의 특별한 문구점 ‘양심가게’

재릉초등학교 5학년 최우준

재릉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심가게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무인자율가게라고 말할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도덕적인 생각과 행동을 연습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가게에서는 학생들이 필요한 문구류를 살 수 있다. 이 특별한 문구점은 ‘양심가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재릉초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양심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무인판매대 형태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직접 필요한 상품을 가져가고 해당 상품에 대한 가격지불은 학교에서 받은 쿠폰으로 지불하면 된다. 양심가게는 1층 교무실과 6학년 교실 맞은편 학생 휴게실에 배치되어있고 점심시간과 중간놀이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6학년 교실근처에 배치된 이유는 고학년 형, 누나들이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을 유도하려고 한듯하다. 지불수단인 쿠폰은 숙제, 일기쓰기와 같은 과제를 제출을 비롯해 오케스트라와 수업 참여 등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잘하면 지급받게 된다.

양심가게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정직한 생활태도를 내면화시켜 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고 자율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끝으로, 양심가게 운영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간단히 쓰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양심가게가 처음에는 독특하고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막상 이용하려고 하니 내가 필요한 상품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점차 이용하는 횟수가 줄었다. 좋은 취지와 발상이라고 생각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생각만큼 사용빈도가 잦진 않지만, 이러한 좋은 기회가 양심가게와 같은 형태로 좀 더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좀 더 높은 도덕성과 자율성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금능 in



- 1 | 재능아울림 과학한마당. 2017년 3월 28일
- 2 | 1학기 등굣길 작은음악회. 2017년 5월 10일
- 3 | 학부모 도자기공예 운영. 2017년 5월 25일
- 4 | 교내 제주어 말하기 대회. 2017년 6월 8일
- 5 | 학부모 동아리 '솔향' 독서특강. 2017년 6월 16일
- 6 | 친환경 학교급식 공개의 날. 2017년 7월 7일





금능인

오래된 공간들, 되살아나는 꿈들 사진으로 읽는 금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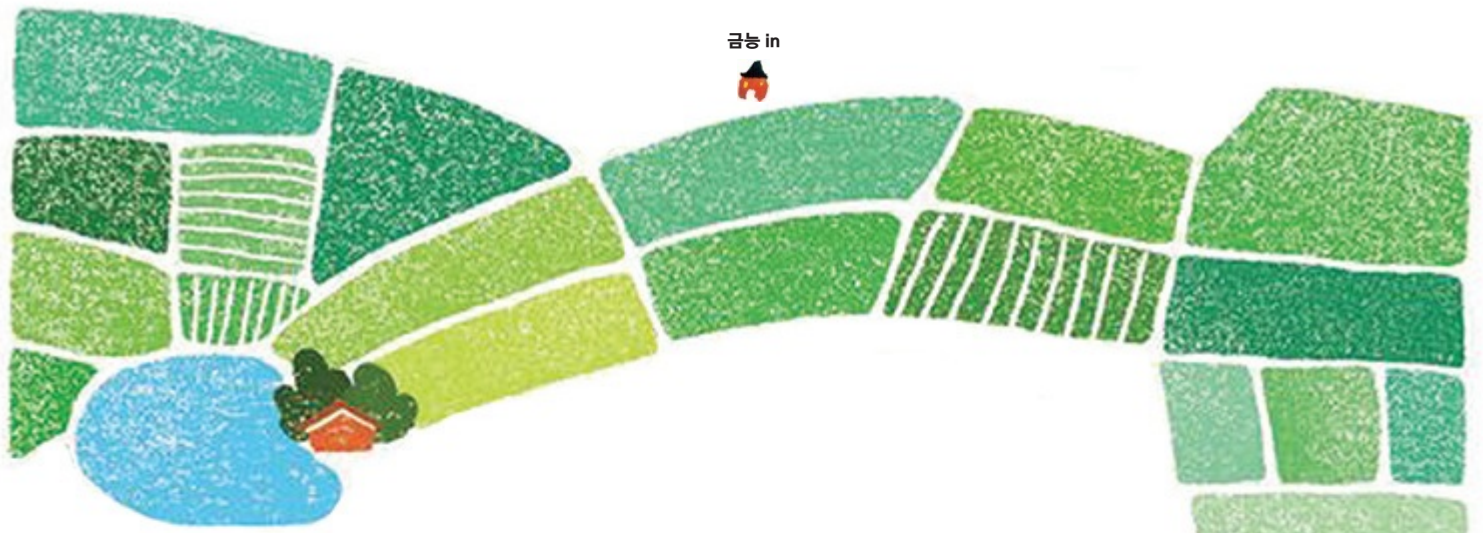
글 | 양민숙



모든 존재는 시공간의 그물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씨줄과 날줄로 겹치는 지점에서
매 순간 삶이 발생하고 또한 연속된다. 이렇듯 시간의 지속에 의해 우리는
삶의 나이를 먹어간다. 한편 공간은 '무엇이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자리'이다. 그런데 허망하게도 과거에 내가(우리가) 존재했던 공간은 세월과 함께 덧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 윤대녕 『사라진 공간들, 되살아나는 꿈들』 중에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잊힌다는 것이 아니다. 몸속의 어느 부분에서 '차르르' 필름을
감아댄다는 것이고, 머릿속의 어느 부분에서는 계단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감고 있던 필름을 풀어헤치는 날이 오거나 계단의 숫자를 세다 갑자기 까먹은 날이 찾아오면 그리움이
왈칵 밀려든다. 그럴 때면 그 시절을 함께 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그 시절의 사진을 뒤척인다.
사진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화가 된다. 씨줄과 날줄이 겹치는 그 지점으로 돌아가 내가 되거나, 나의 사람들이 된다.
금능리 앨범 속에도 지나 온 시간만큼 헤아릴 수 없는 공간. 장소가 담겨져 있다.
사라지거나 변해버린 오래 전 금능리의 공간. 장소가 지금 금능리의 공간. 장소에게 말을 건넨다.





금능 in

| 과거 |

| 현재 |



1. 금능곰차롱작은도서관 마당

지금은 금능곰차롱작은도서관과 해차롱 공간으로 변한 옛 금능리사무소 마당은 마을의 중심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날 함께 하는 장소였다. 사진이 흔치 않았던 시절, 새해를 맞아 갑장들과 그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단체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깊었다는 뜻이다. 그 당시만 해도 공동체문화가 담이었다. 경조사와 농사일을 함께 나누던 '계', '갑장', '친목'은 어려운 시절 서로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 과거 |

| 현재 |



2. 마을 골목길

마을 골목길이 놀이터였던 때가 있었다. 길을 걷다가 발에 돌맹이가 걸리면 돌맹이를 가지고 놀았고, 마른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나뭇가지가 놀잇감이 되었다. 게임기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함께 있으면 모든 놀이가 가능하던 때, 굳이 '놀이문화'라는 세련된 단어가 아니어도 충분히 그런 문화가 자연스레 형성되었던 때. 길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 과거 |



| 현재 |

3. 금능해수욕장

제주의 명소가 되어버린 금능해수욕장. 멀리 보이는 비양도는 언젠가부터 입담 좋은 스토리텔러에 의해 '어린 왕자' 속에 등장하는 꼬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되었다. 겨울, 학교에 오고가기 위해 모랫바람이 날리는 이 해수욕장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의 원성을 맨몸으로 받아야만 했던 장소이고 또한 누군가는 결혼으로 이어진 기가 막힌 연애담이 담겨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지금은 치솟는 땅값만큼이나 귀한 대접을 받는 몸이 되었다.

| 과거의 결혼식 모습들 |



4. 결혼식장

마당에서 결혼식을 치루는 것은 어느 집이나 있는 당연한 풍경이었다. TV사극에 나오는 혼례장면처럼 연지곤지 찢고 족두리 쓰던 시대를 지나 화관과 면사포를 쓰던 시대, 서양에서 유래된 검은양복과 하얀 웨딩드레스가 결혼식 예복으로 인식되면서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아니지만, 하얀 한복드레스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제주 돌담과 초가지붕이 하얀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 주고 있다.





5. 금능포구

이곳을 나가면서, 마을 어선들은 풍어를 기원했고, 해녀들은 망사리 가득 차 있는 해산물을 기대했다.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거나 해녀들이 해산물을 많이 잡을때는 괜히 기가 살아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부들도 사라지고 있고 해녀들도 그 수가 확연히 줄었다. 그런데 포구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한쪽은 부족해가고 한쪽은 거대해진다는 반비례의 법칙, 제주의 변화를 실감하게 해 주는 증거다.



| 과거 |



| 현재 |

| 과거 |



| 현재 |



6. 마을 일주도로

비포장 인도. 낮은 집들이 있던 좁은 도로에는 지나가는 차가 그리 많지 않았다. 도로 옆에 서서 간혹 지나가는 차를 구경하는 것도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에 충분했다. 그러다가 해 떨어지는 시간, 멀리 엄마가 찾는 소리가 나면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던 때, 막대 사탕 하나만 있어도 서로 한입씩 빨아먹던 시간도 공존한다. 지금은 큰 건물들이 들어섰고 잘 포장된 인도도 있다. 이 길에서 수많은 꿈을 꾸었던 아이들이 이제 이 길에서 그 꿈을 이어 나가고 있을까? 뭔가 다 갖춰진 것 같지만, 분명 아쉬움도 남는다. 사라짐에 대하여.

지금의 공간. 장소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

한 드라마처럼 무전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소통할 수 있다고 가장한다면 분명 이 장소들은 그동안의 시간에 대해 침묵을 지킬 것이란 생각이 든다. 슬쩍 시침 땔 수도 있다. 무엇이 이들을 사라지게 하고, 변하게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는 금능은 과연 어떤 모습일는지, 과거의 금능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ㅅ·IN

* 사진 제공 - 고석주, 차영옥, 이윤영, 양명량

* 옛날 사진을 찾고 있습니다. 금능을 배경으로 찍은 오래된 사진을 가지고 있는 분은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으로 연락주시지요.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금능인

금능마을에세이 - 손수건에 그린 차롱길 지도 한장

글 | 김병심 (시인)

정신을 한 곳에다 쏟아 붓고, 몸과 시간까지 몰아놓고, 나 아닌 도시인으로 살았습니다. 자고나면 바뀌는 전광판의 광고와 인스턴트 속에서 시계는 얼떡였습니다. 이제 다시 달아난 시간과 광장으로 향하던 제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경쟁은 끝났고, 함께 활시위를 겨누던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것들이 사라지고, 낡은 것들이 사라지고, 단출함이 사라지는 도시에서 훌쩍 떠난 곳, 잊히기 싫은 당신이 그대로 붙박이가 되어 사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수건에 그린 차롱길 지도 한 장 들고 오시록헌 마을에 무턱대고 내린 겁니다. 도시인이던 저와 배웅을 마치고 돌아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쌓아놓고 읽지 못했던, 기다려준 책들에게 감사합니다.

커피와 빵과 독한 음식들로 지독하게 몸을 달구던 식탁도 치웠습니다. 손수 지은 밥과 우영팻의 채소들로 식탁을 채웠습니다. 초를 켜고 꽃을 꽂았습니다. 초록민박으로 들어가면 새싹의 두근거림으로 다시 살아날 것 만 같았거든요. 파란 지붕의 마루에 요 깔고 누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내장까지 가재미처럼 납작해져서야 저린 몸을 일으켜 부풀린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무렇게나 입은 민낯의 츄리닝 차림으로 느릿느릿 차롱길을 따라 산책할 것입니다. 팽나무 옆 [leelee story](#)에서 차를 한잔 마시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건넸던 빙떡과 식혜가 사무쳐 목을 대가 잠기기도 했습니다. 딱히 누굴 만나 경계심과 경쟁심을 부추길 필요 없는 동네가 따뜻합니다. 담장 위 선인장과 게으른 대화를 하거나 빈집의 개와 맞장구치는 켁켁거림의 얇은뱅이걸음이 좋습니다.

영진철물에서 산 쓰레빠를 질질 끌며 [금능곰차롱작은도서관](#)까지 걸어나가 봅니다. 보아뱀이 삼켜버린 코끼리를 달래며 끌고 갑니다. 동화책 몇 권에 손이 가고, 다시 그림책으로, 결국 동화책을 빌리고 마는 시인입니다. 백석 시인처럼 살고 싶지만, 어린왕자가 그린 보아뱀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빌린 책을 거드랑이에 꽂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아서다가 우렁각시인 당신이 살고 있을 것 같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깜박 잊고 초인종을 달지 않았더라면 대신 손수 그린 시화가 문패대신 걸려있는 집이었습니다. 맏소사, 당신 혼자만이 아닌 동네 전체가 저를 기다려 준 듯 고독한 고통나팔의 들꽃을 피워낸 시들이 대문마다 등롱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금능 in



1. leeleestory

2.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3. 카페 그곳

4. 시화문패가 있는 금능 차롱길 지도



오후 4시의 종력을 이기지 못한 저는 황급히 **카페 그곳**으로 들어가 시즈널 에일 낮맥을 들
이켰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날고 사람이 모여 살아도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
다. 찰랑거림
하나로 모두 붙들고 있는 금능 마을이었으니까요. 썰물 같은 당신이 나를 끌어당기는 이유
일겁니다. 제일상회의 낮음 같은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시간을 닦으며 흐르게 놔두고 계셨
습니 다. 이십억 광년의 두근거림을 부려놓은 비양도를 바라보고 사는 동네에서 시를 쓰지
만 동화 속의 로맨스를 버리지 못해 바닷가에 쏟아진 별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 다.

별은 하늘에서 뜨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둠에서 피어난 것도 아니었구요. 여기선 별이 금
능 으뜸 모래사장에서 비양도까지의 눈맞춤으로 돌아난다는 걸 이제사 들쳐본 저를 용서
해주십시오.

동화를 읽어주는 당신이 있는 도서관 주변을 서성이며 오래오래 눈시울을 적셔봅니다. 돌
담마다 꿈을 차롱에 담아 걸어둔 당신이 있어서 쉬고 싶을 때 훌쩍 떠난 제가 있는 것입
니 다. 등을 단 돌하르방과 시계탑, 사자가 올라간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저를 기다려 주
신 당신을 저만 손가락 귀마개로 막고 있었나봅니다.

동네의 안트레 올레를 느리게 걷다 아린 명치끝에서 편지함 열립니다.

저만 왈칵 그리움에 눈물이 고인게 아니라고

입술이 달싹달싹

마음이 몽클몽클

금능의 여울을 건너 여울 여울 흔들리는 비양도의 노래도 듣습니다.

명화 속 출석표에서 선자, 인향, 순보, 순화, 성수, 성자...를 불러내어봅니다. 육십갑자의 차
이를 버리고 코흘리개 친구로 불러 나올 것 만 같은 낮은 지붕의 이름표에 하얀 손수건이
팔랑거립니다. 시로 수를 놓은 당신이 기적처럼 금능 마을에 계셨으니까요. 그 친구의 친
구들입니다.

다시금 혼자를 들여다보게 하는 마을, 금능 마을에 따뜻한 별들만 달아주신 당신, 도시에
서 훌쩍 떠나고 싶을 땐 당신이란 두근거림을 찾아오고 싶습니다. 언제나 당신이 저의 이름
을 부르며 시를 쓰는 마을이니까요. 지구의 추억을 버리지 못하는 어린왕자가 착륙할 때 까
지 작고 투명한 별을 달고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마을이니까요. **人-IN**



〈금능인〉특집에서는 각 세대별 놀이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눔을 통해
세대별 놀이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세대별 놀이문화에 대한 차이와 공통분모를 이해하고 얹으로써,
세대별 이해와 재미를 공유하고자 놀이대담을 실시하였다.

세대별 놀이 대담 영 놀아수다

대담 | 50대 이창훈 · 50대 홍경하 · 40대 김성수 · 40대 양민숙 · 30대 양성혁 · 30대 이윤영

정리 | 40대 이주리민 이상숙





금능인게



40 양민숙 얼마 전 마을 어르신들께 여쭙보니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즐겨했던 놀이들이 우리 세대의 놀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숨바꼭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말타기, 딱지치기 등 도구만 조금씩 진화하거나 형태가 살짝 달랐을 뿐이라는 거다. 어르신들이 어렸을 당시에는 남녀가 함께 놀지 않았다는 점,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어로 노래를 불렀다는 점 등이 다르다고 하셨다. 예전에도 그랬고 우리 세대 때도 마찬가지로, 놀았던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닌 항상 마을 안 모든 곳이 놀이터가 되었다. 오늘은 금능리에서 어린 시절 함께 했던 놀이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한다. 우선은 마을의 놀았던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

50 홍경하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집저집 몰려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이 난다. 자주 모여 놀았던 놀이터는 기남이동산, 비석거리 등이 있었다. 여름엔 모살밭 아카시아 나무에 매미가 엄청 많아서 거기서 놀면 좋았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아쉽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햇볼클럽’이라는 공부방이 있었는데, 학년별로 공부하면서 서로 친분도 쌓았다. 한 3~4년 정도 유지되었던 것 같다.

50 이창훈 ‘햇볼클럽’은 우리 때 청소년들에게 참 소중한 역할이 되어 주었다. 1973년~1975년경까지 활성화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수준별로 가르치고 학교 공부를 도와줘서 성적도 많이 올랐다. 나는 진보상이란 것도 받은 기억이 난다. 예전에는 탁구장이 있었는데 그 곳이 우리들의 아지트가 되기도 하였다.

40 김성수 옛날에는 지금보다 눈이 훨씬 많이 내렸던 것 같다. 눈이 내릴때면 기남이동산에서 썰매도 타고, 돌에다 눈을 굴려서 커다란 눈사람도 만들었다. 박쥐를 잡으러 동굴로 많이 다니기도 했다.

40 양민숙 알동네에서는 옛날 펄랑을 매립하기 전에 그 앞에서 동네 친구들, 언니오빠들, 동생들과 함께 다 모여서 숨바꼭질, 잡을락,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놀이를 즐겨 했다. 가끔 언니들을 따라 정구물에도 가고는 했는데, 그때는 밖에서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망을 보는 담당을 했다. 캄캄할 때는 혼자 망보는 것이 무섭기도 해서 안에 있는 언니들을 소리 내어 부르곤 했다. 그때 안에서 언니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30 이윤영 초등학교 다닐 때 정구물에 스님이 계셨는데, 새벽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체조를 가르쳐 주셨다. 그때 그 곳에서 기체조를 하며 아이들과 놀기도 하였고 금능석물원 버스 정류장 쪽에 그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재미있게 놀았다. 그리고 차가 별로 없을 시절 얘기긴 한데, 중앙선에서 차가 오길 기다렸다가 가장 오래 버티는지를 두고 내기하고는 했다. 좀 위험했지만 그 당시에는 인기 있는 놀이였다.



50대 리민 이창훈



40대 리민 양민숙



30대 리민 양성희





금능인



50대 리민 **홍경하**

40대 리민 **김성수**

30대 리민 **이윤영**



50 홍경하 천주교 공소에서도 많이 놀았다. TV있는 집이 드물때여서 TV있는 집에 함께 모여 TV를 보고 유랑극단 왔을 땐 어른들 몰래 보러가기도 했다.

40 김성수 지네 잡으러 많이 다녔다. 친구들과 누가 많이 잡는지 내기하면서 놀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잡은 지네를 팔아 돈을 벌기도 하였다.

40 양민숙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으니, 같은 장소이지만 노는 방법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그럼 이번에는 장소에서 벗어나 도구나 기구를 이용한 놀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다. 장소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도구나 기구를 이용한 놀이문화도 마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환경에 따라 이용한 기구가 다르고 또한 노는 방법이 달랐다. 금능은 어떤 도구나 기구를 가지고 놀았는지 궁금하다.

50 이창훈 굴렁쇠 놀이! 자전거나 리어카 바퀴를 이용해서 굴렁쇠를 만든 게 최고였지. 서로 굴렁쇠 오래 굴리기 놀이를 하기도 하였고. 밤에는 나무로 만든 총을 갖고 놀았다. 겨울에는 고구마, 감자 등에 조각도 하며 놀기도 한 기억이 있다. 우리는 직접 나무를 잘라서 팽이도 만들고 놀았다. 아마 요즘 엄마들이었다면 위험하다고 말할 일이었다. 비 오는 날에는 물이 고인 곳에서 종이 배를 띄우며 놀기도 하였다.

30 양성혁 구슬치기, 비석치기, 목대 맞추기, 망개놀이 등을 많이 했다. 작살을 이용해 고기를 잡으며 다 이빙도 많이 했다.

50 이창훈 참새잡기도 많이 했다. 금능만의 참새잡기 방법이 있었다. 삼동나무로 만든 기구를 이용해서 잡았다. 과학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금능에 사는 선배님의 착안이었다. 말총을 이용해서 하는 기구도 있었다.

50 홍경하 돌을 쪼개서 노는 아이들도 있었다. 대부분 주변의 자연물을 활용해 많이 놀았다.

50 이창훈 영사기를 직접 만들어 영화를 보곤 했다. 만화를 베껴서 상자와 돋보기를 이용해 만들었는데, 옛날 영사기 방식이다. 초충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위험하긴 했지만 직접 만들어서 놀았다.

40 김성수 생각해보니 우리 어렸을 때가 참 좋았던 것 같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니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렸을 때의 놀이들이 많이 그림다.

40 양민숙 어른들은 이처럼 자연 속에서 스스로 놀잇감을 찾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놀았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자연과 가까이 뛰어놀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게 안타깝다. 꿈차롱도서관에서





금능인게



작년에 '토요꿈다락프로그램'을 통해 금능의 산, 들, 바다, 마을안길 등 자연을 통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 호응이 좋았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먹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어렸을 때 놀이문화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먹거리'이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듣고 싶다.

30 양성혁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금능모살밭에 가서 매미를 잡아서 매미를 구워 먹었다.

50 이창훈 고구마서리를 해서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모래구덩이 파서 불을 때고 숯만 남았을 때 고구마 넣고 모래를 덮어 고구마를 구우면 정말 맛있었다. 땅콩도 서리를 해서 그렇게 구워먹었다.

40 양민속 그런 것을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아서 지혜롭게 놀았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일 것 같다.

50 이창훈 마늘쪽 구워먹으면서 놀았다. 양파도 구워 먹었는데, 나중에 고추가 커졌다. 아직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40 양민속 생각해 보니, 보리와 굴도 구워 먹었었다.

50 이창훈 금능만의 놀이도 있었다. 굴에 햇불을 들고 가서 박쥐를 잡아와서 구워 먹기도 하였다.

30 이윤영 나도 분유통으로 햇불을 만들어서 동네 오빠들 따라 동굴에 박쥐 잡으러 다니던 기억이 난다.

40 김성수 삼동열매 따라 다니기도 하였고, 산에서 약재나 먹거리로 이용되는 열매나 뿌리를 많이 다고 캐러 다녔다.

50 홍경하 쪽쪽보말 잡아서 먹던 것도 놀이겸 생활이었다.

50 이창훈 쪽쪽보말은 삶아서 먹을 때 현무암 돌구멍에 끝부분을 떼서 먹었다. 기막힌 방법이었지. 지금은 바다에 내려가면 쪽쪽보말이 깔려있는데도 먹는 사람이 없어. 그만큼 먹거리문화가 달라진 거겠지.

40 양민속 오늘 세대별 놀이 대담을 통해 잊혀져가는 장소, 놀이기구,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이러한 놀이문화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힘을 내게 하는 소중한 기억들이지만, 지금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생소한 문화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옛날 놀이문화를 이야기하며 그리움에 빠져보지만, 요즘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 놀이문화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든다.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옛날 놀이를 재현해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아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오늘 바쁘는데 대담에 함께 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데 감사드린다. <IN>



40대 이주리민 이상숙



금능꿈차통작은도서관에서의 대담

금능인

제주도에 부는 '이주 열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어떤 희망을 품고 제주로 오는 것일까?

제주도 이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지역주민과 어우러지지 못하는 문제, 비싸지는 집값,

고정 수입을 얻기 힘든 점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이주민과 선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보게 되었다.

선주민 김미복, 이주민 박선옥씨를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져본다.

선주민과 이주민과의 대화 나에게 금능은

대담 | 김미복 · 박선옥 진행 | 이운영



선주민 김미복



이주민 박선옥



금능인게



사회자 **이윤영** 금능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이주민 박선옥 금능 바다가 예쁘다. 협재에서 바라본 바다보다 훨씬 더 예쁘다.

동네가 골목마다 아름답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느낌이다. 금능에서 뽀빠이 이상용네 별장 집에서 잠깐 지내면서 금능에 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구하지 못해 할 수 없이 협재쪽에 집을 지었다. 그렇게 협재에 갔더니 이주민도 너무 많고, 상업화되어 있어서 내가 꿈꿨던 이웃과의 소통이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별장에서 지낼 때 앞집, 옆집, 뒷집 금능 할머니가 너무 잘해주셨던 따스한 마음이 좋아서 금능으로 이사올려고 애를 썼고 지금은 센텀 빌리지에 거주하고 있다.

선주민 김미복 선주민으로서 나에게 금능은 나고 자라고 금능 남자와 만나서 시집가고, 친정, 시댁도 다 금능이라 더 매력적인 것 같다. 내 또래 친구들은 제주시로 나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아무런 이유없이 금능이 좋다, 내가 태어나서이기도 하지만 편안하다.

사회자 **이윤영** 금능 마을에 현주민과 이주민들 소통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이주민 박선옥 금능와서 가장 좋았던 건, 집 앞에 바로 금능 꿈차롱 도서관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금능리민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돼서 좋은 것 같다. 프로그램을 가보면, 수강생이 이주자가 더 많은 것 같다. 비용이 절반이면 더 좋을텐데 금능리민들과 친해지고 싶어도 자주 보지 않으면 어색해진다.

선주민 김미복 현재 금능 부녀회 회원으로 풍물패 활동도 하고 있고, 이주민들과 잘 지내보려고 도서관 수업도 듣고 있다. 주말마다 열렸던 금능원담장터에서 셀러로 활동하면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다.

사회자 **이윤영**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금능리민이 느끼는 장, 단점은 무엇인가요?

이주민 박선옥 금능 마을 같은 경우 선주민 이주민 소통의 장소가

다른 마을에 비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지 연장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수업때만 만나는 선주민, 이주민과의 만남이 안타깝다.

마을 행사 참여를 자주 해야 친해지지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

깊이가 없어 보이는게 단점이다.

선주민 김미복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좋은 점은 아이디어가 많고, 시도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 체험을 새롭게 접할 수 있어서 신선해서 좋은 것 같다. 이주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도 많아서 도서관 수업에 참여도 잘하는 모습을 보면 자극이 된다.

반면 이주민이 많아서 좋긴 하지만 젊은 현지인들은 그래도 배우러 가는 편이긴 한데, 어르신들은 농사일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주민과의 거리감 때문에 다가서기가 힘든 것 같다. 아직은 소통의 끈이 없어 서먹한게 안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주민이 많아 지면서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 같다. 관광객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지만, 이주민은 안면이 없으면 한번 더 되돌아 보게 된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경계심이 생기고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자 **이윤영** 그럼 어떻게 하면 선주민과 이주민이 잘 소통하며 지낼수 있을까요?

이주민 박선옥 요번에 추석 뒷날 열리는 마을 체육대회에 씨름선수로 참여했었다. 선수로 참여하긴 했으나, 행사에 끼야 할지 어쩔지 몰라 눈치가 보였는데, 씨름 하러 갔을 때 누군가 금능리민이니 중간부터 오지말고 개회식때부터 오라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이주자 입장에서 금능에 오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다.

리사무소에서 금능마을 밴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마을 행사나 다양한 이벤트 모임이나, 행사내용도 알리고, 이사오면 리사무장이 누가 어디에 이사왔는지 알려 주기도 하고, 이사온 이주자는 누구인지 사진도 올리고 통성명 인사도 올리다 보면, 조금씩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센텀빌리지 건물에 사는 이주민들은 센텀 밴드가 있어서 단합이 잘 된다. 체육대회도 주최했었고, 할로윈 파티 등등, 아빠들이 잘 도와주고, 살림을 잘 꾸려가는 걸 보면, 선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위해 초대장도 발부하고, 즐거운 이벤트도 많이 알려져, 금능리민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리민들의 의견도 묻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선주민 김미복 서로 화합하는 데에는 연령대의 영향이 가장 크다. 나이드신 선주민은 자신의 농사가 우선이다보니 마을 행사가 있어도 자신의 본업에 치우쳐 있으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나이드신 분들이라도 여건과 체력이 되는 분들은 자기 일 끝나고 참여하긴 하더라. 행사가 있다는 걸 밴드나 sns를 통해 문화 체험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또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수업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버리지 말고, 수업의 연장선에서 동아리 결성이라든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오름 등반이나 올레걷기 모임을 의무적으로 정해서 바쁜일이 있어도 함께 소통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운동을 좋아하는 아빠들은 족구대회도 열어보고, 가족들은 응원도 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에 첫단추를 끼워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아빠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단합대회를 자주 열다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령대에 맞게 놀기도 하고, 육아 고민도 하면서 말이다.

제주로 오는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오는 사람들도 다양해졌다. 연예인도 오고, 잘사는 사람도 오고, 경쟁하지 않는 조용한 시골이 좋아서 오는 분도 있고, 제 2의 인생 터닝 포인트로 다들 자기 고향을 두고 새로운 것을 찾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 어렵게 제주로 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선주민들은 약간 네편 내편이 있고, 끈끈한게 사실이다. 초보 이주민들이 쉽게 선주민들과 융화되긴 쉽지 않겠지만, 선주민이 더 포용하는 마음으로 끌어 안고 제주가 이주한 사람들이 새 삶을 꾸리는 터전이 되었으면 한다. **이민**





숨어 있는 길

고춘숙

조그만 길이 있었다
아스라이 멀어져 지금은 희미해져버린
그 길을 더듬는다
흙과 모래와 잔디가 고루 섞인
내가 걷고 싶은 길
바쁜 삶이라는
단단한 아스팔트로 포장됐지만
그 길을 찾아 보련다
그 길을 다시금 걸어 보련다
목적의 끝은 아니지만
은은한 향을 맡으며
즐거워 보련다

고춘숙 금능리민. 시인. 2017년 『문학광장』으로 등단.
(사)색동회제주지부 제18회 색동어머니동화구연대회 소파상 수상





금능리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 기르는 어업으로 변화하는 금능리 어촌계

글 | 김순일



제주 해녀의 유래를 찾아보면 1105년 고려 숙종의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니 제주 해녀는 9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제주도 해안마을 부녀자들은 대부분 해녀였고, 해녀는 바닷속에서 긴 숨을 참으며 목숨까지 담보로 걸어야 하는 힘들고 위험한 직업이다. 우리 금능리에도 200명의 해녀가 있지만 절반 이상인 100여명이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60세 이상도 50명 이상이다. 이렇게 힘들게 물질을 하며 가족의 생계와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온 해녀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다. 금능리 어촌계는 어머니 해녀들과 어선어업을 하는 아버지들이 바다에서 함께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모인 단체이자 법인이다.

금능리 어촌계는 총 230명의 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선어업을 하는 남성은 30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나잠어업을 하는 여성 해녀로 구성되어 있다. 계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200명 중 60명 정도만 물질이 가능하다보니 신규 해녀의 가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행히 올해 초에 30대 해녀 4명이 신규로 가입해서 금능리 어촌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금능리 어촌계는 대한민국 어촌계 중에 0.2%에 꼽힐 만큼 대단한 곳이다. 전국 3,000여개의 어촌계 중에서 '연안바다 목장사업'에 총 6개의 어촌계를 선정하였는데, 바로 금능리 어촌계가 이 사업에 선정되어서 2014년부터 총 5년간 50억의 투자를 받고 있다. 연안바다 목장 사업은 바다에 다양한 종류의 종패(어종의 씨앗)를 방류하고, 일정기간 관리하여 성장시킨 후에 다시 수확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잡는 어업'이었다면, 이제는 '키우는 어업'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단일 어촌계가 운영하는 사업으로는 대단히 큰 규모의 사업이다. 2014년에 종패를 첫 방류한 홍해삼이 1년간의 성장과 관리 과정이 지난 후에 올해부터 어촌계에 큰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다.

또 참모자반(뽕) 양식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2015년에 방류한 오분자기 종패도 현재 잘 자라고 있어서 2017년 2월에는 오분자기를 대량 채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분자기 양식이 성공적으로 진행 된다면 오분자기를 금능리의 대표 바다 작물로 가져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황폐해가던 금능리 앞바다에 연안목장 사업을





금능인게



- 1 | 해녀의 나잠어업 사진
- 2 | 성공적인 바다목장사업으로 금능리 앞바다에서 잡힌 홍해삼
- 3 | 금능리 어촌계 문영철 계장
- 4 | 금능포구 사진

통해서 다양한 어종들이 우리의 바다를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금능리 어촌계 문영철 계장은 2017년 3월에 새롭게 계장으로 선출 되어서 새롭게 임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바다목장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계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특정지역에 종패를 뿌리고 입어를 금지하면 계원들의 반발이 매우 컸 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르는 어업’에 대한 계원들의 이해가 높아져서 계원들 스스로가 종패를 뿌릴 위치와 시기를 제안하고, 종패를 뿌린 곳에 입어를 스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원들이 스스로 어장을 관리하다 보니 이 사업은 성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사업의 성공 요인을 말한다. “이제는 바다목장 사업으로 다양한 바다 작물을 성공적으로 채취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함께 우리가 채취한 바다작물을 스스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라고 야심 찬 포부를 말한다.

문영철 계장은 금능리 어촌계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계원들이 좀더 운택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2015년 11월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후에 해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수산물 직불제의 시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원들에게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금능 포구를 관광 어항으로 개발하는 청사진도 그려보고 있다. “기존에 금능포구는 물고기를 잡는 어촌 어항이었다면, 이를 잘 정비하고 관광 산업을 융합해서 관광 어항으로 개발하는 비전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을 리민과 어촌계 계원이 함께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문영철 계장이 금능리 어촌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을 기대해 본다. [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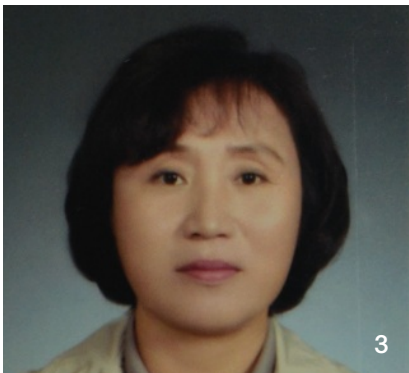




금능인

마을을 섬기는 섬세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 어울림으로 행복해지는 **금능리 부녀회**

글 | 김순일



은빛 모래 속 쪽빛바다를 품고, 나지막한 정월오름이 마을의 중심을 잡아주는 금능리는 바다와 산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소박한 농어촌 마을이다. 아름다운 올레길 14코스 뿐만 아니라 인심 좋은 주민들 때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다. 금능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인심 좋은 마을이 된 이유는 금능리 부녀회의 역할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금능리 부녀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봉사 활동과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마을의 자치단체로 금능리에 거주하는 만 65세 미만의 기혼 여성이라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부녀회 회원이 될 수 있다.

금능리 부녀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 금능리 마을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 전체의 청소는 물론이고, 폐비닐과 헌 옷을 수거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능향원의 청소와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의 청결을 유지하는 일까지 마을의 어느 한 곳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부녀회의 역할 중 빼 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일은 마을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이다. 매년 진행되는 경로 잔치는 물론이고 효도관광과 어버이날 효 잔치는 마을어르신들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중요한 행사이다.

매년 7월에서 8월까지 가장 더운 날씨에 운영되는 금능원담해수욕장에서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마을 탈의장을 부녀회에서 운영한다. 탈의장을 운영하면서 더운 날씨는 물론이고 많은 이용객들과 접하면서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지만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금능리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을의 대표 행사인 금능원담축제에서 부녀회의 눈부신 활동 또한 손꼽을 만하다. 축제를 즐기는 수많은 관광객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 모두의 미각을 자극하는 먹거리 장터는 금능원담축제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이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금능리 부녀회로 구성된 풍물패의 길ტი기 공연 또한 축제의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금능리 마을의 단합을 위해서 매년 추석에 개최되는 금능리민 단합체육대회에서도 부녀회의 먹거리와 풍물패 공연은 또다시 빛을 발한다.



1 | 페비닐 페자원 수거

2 | 금능리 부녀회 나들이

3 | 20대 금능리 부녀회 조미혜 회장

4 | 금능리 부녀회 풍물패

그 외에도 제주여성 농민회와 함께 고추장 만들기와 토종 씨앗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여성 농민의 지위 향상과 토종 씨앗 지킴에 대한 인식개선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금능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어머니의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하나 챙기는 부녀회 덕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 할 수 있다.

현재 20대 금능리 부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미혜 회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 3년의 부녀회장 임기 동안 금능리 부녀회의 역사를 정리 하고 있는 것이다. 60년 가까이 운영되어온 금능리 부녀회의 수많은 발자취들이 역대회장님들이 연로해 지면서 그 소중한 기억들이 사라져 가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역대 회장님들을 한분 한분 찾아 다니며 부녀회의 소중한 기억들을 모으고 있다. 때로는 기억의 퍼즐들이 오랜 시간에 묻혀서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 어르신들의 기억을 사진과 함께 하나로 모아서 맞추다 보면 흩어진 기억의 퍼즐 조각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역사로 구성된다. 조미혜 회장은 “지금 이 역사의 자료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영원히 잊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작업인데 진행하다보니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역대 회장님들과 부녀회의 역사적인 자료를 알만한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얼굴을 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옛날 금능리의 모습들과 어르신들의 젊어서 모습들이 저의 머릿속에 아름답게 그려지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에서도 밝은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하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정리한 자료들이 시간이 지나면 후배들에게 좋은 자료로 남을 것 같아서 더 뿌듯해요.”라고 말한다. 임기 중반을 지내는 조미혜 회장은 동아리를 또 하나의 중요한 활

동으로 꼽는다. 부녀회 회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된 동아리 활동 중에 풍물패 동아리는 현재 27명이 참여해서 지난 여름에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한 덕에 금능리 마을의 행사는 물론이고 다양한 행사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전국 풍물 경연대회에 참가 하기도 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부녀회 회원들이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은 물론이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 성취감 또한 우리를 더 강하게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또 마을의 사업에 다양한 방법을 참여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더 즐거워요.”라고 조미혜 회장은 말한다.

“자기 일도 바쁘지만 이웃과 마을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자기 일을 놓고 그 일에 먼저 소매를 걷고 일손을 보태는 부녀회 회원들이 있어서 늘 행복해요. 이렇게 자신의 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이웃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어울림의 기본’이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부녀회가 행복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17년도에는 금능리 부녀회에서 또 하나의 작은 도전을 시도하려고 한다. 최근 다양한 이유로 금능리로 삶의 터전을 옮겨온 주민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것이다. 마을의 모든 부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요리를 배우고, 만든 음식을 나누면서 원주민과 이주민의 어색함과 낯설음을 극복하고 금능리의 모든 부녀자들이 화합하고, 모두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것이다. A·IN



금능리

마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아들들 단합과 협동으로 더 단단해지는 금능리 청년회

글 | 김순일



우리 금능리는 근로동, 자립동, 자조동, 협동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추석 다음날이면 금능으뜸해변에 마을 전체 리민들이 모여서 ‘금능리민 단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39번째인 체육대회에서는 지네발 릴레이와 줄다리기, 줄넘기, 씨름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행사로 진행 되었고, 모든 리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 체육대회가 39회의 긴 전통을 이어오는데 금능리 청년회의 역할을 빼 놓을 수 없다. 부녀회와 함께 준비한 체육대회 뿐 아니라,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에 먼저 술선수범하는 청년회가 있어서 우리 마을은 든든하기만 하다.

금능리 청년회는 1948년 이전에 대동청년단으로 개설되어 운영되다가, 1958년 청년회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금능리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45세의 청년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금능리 청년회는 마을의 선봉대에 서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5월에 개최된 제32회 한림읍민종합체육대회 뿐아니라 올해 개최된 한림읍 연합청년대회 등 대외적으로 금능리의 단합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면 누구보다 먼저 금능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 내는 이들이 금능리 청년회이다.

또한 청년회는 마을의 힘듦과 굶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선다. 마을의 도로변에 잡풀 베기부터, 더운 날씨 속에 금능해수욕장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시설물 관리하는 일 또한 청년회가 담당한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원담축제에서도 금능리 청년회의 눈부신 활동을 볼 수 있다.

금능리 청년회에서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일 또한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매년 5월이 되면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함박 웃음을 선물하고, 2년에 한번은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다녀오는 믿음직한 효자들이 금능리 청년회이다.

금능리의 맞아들 역할을 하고 있는 현상훈 청년회 회장은 마을의 많은 일들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회원간에 친밀함을 유지하고, 외부적으로는 부녀회와 함께 협동하여 마을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상훈 회장은 ‘금능리민 단합체육대회’를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로 꼽는다. 마을





금능인게



4

- 1 | 금능원담축제에서 굿을 맡아 일하는 청년회
- 2 | 금능리 청년회의 방역 봉사작업
- 3 | 금능리 청년회 현상훈 회장
- 4 | 금능리 청년회의 금능해변 정비 작업

리민들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여간 즐거운 일이라고 함박 웃음을 짓는다. 지난해 리민 단합체육대회가 몇점이나고 물으니 “80점을 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해도 늘 20점은 부족해요. 그리고 그 20점이 부족해야 다음에 더 노력할 수 있거든요. 또 올해에는 금능리민 단합체육대회가 40회를 맞게 되어서 더 의미 있고 성대하게 준비해 볼 예정입니다.”

현상훈 회장은 “우리 금능리 청년회는 한림읍 내 21개 부락의 청년회 중에서 가장 단합이 잘 된다고 평가 받고 있어서 다른 마을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 입니다. 마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서 선후배 관계를 통한 유대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청년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청년회를 한껏 자랑했다. “청년회 활동을 단지 마을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생각보다는 마을의 선후배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선배들과 막걸리 한잔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함께 한다면 모든 활동들이 더 즐거워 질 것입니다. “라고 청년회 회원들에게 조언을 했다.

현상훈 회장은 마을 주민들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한다. “마을에 함께 사는 분들이 모두 선배이고, 삼촌이고, 이모, 고모인데 뒤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잘한다 칭찬해 주셔서 항상 감사 합니다.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청년회장으로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리고 자주 얼굴을 뵈는 것이 가장 좋은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야 누가 아들인지 누가 딸인지 알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마을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우리 청년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면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A-IN

은빛 모래 속 쪽빛바다를 품은 금능리 제10회 금능원담축제

글 | 편집부



올해 금능원담축제는 열 번째를 맞이했다. 열 번째를 맞이한다는 것은 그만큼 **원담축제**가 지역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흔했던 제주의 돌을 이용해 만든 자연그물 원담은 금능리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생존의 수단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은 제주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하고 있다.

열 번째를 맞은 **원담축제**는 그 규모나 내용으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우선 원담축제를 준비하는 **원담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축제기획 및 진행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해 리민들과 함께 제주원담의 가치를 알리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초로 **원담홍보관**을 조성한다. **원담홍보관**은 원담에서 이용하던 원담의 가치와 선조들의 지혜를 널리 알리고자, 실제로 원담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기구들도 선보이게 된다. 아가해녀들을 비롯한 **포토존**을 조성하고 원담축제의 먹거리도원담에서 잡은 **강이등**을 이용한 음식으로 진화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출연하는 **원담퍼포먼스**도 볼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는 **금능풍물패**는 이미 지역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마을 개발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출연하는 원담에서 **멜**을 잡는 퍼포먼스와 함께 금능풍물패의 공연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담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뽀뽀뽀뽀 **맨손으로 고기잡기** 체험이다. 이 시간이 되면 축제장은 더욱 시끌시끌 북적인다. 참가신청을 하면 받는 장갑과 망을 가지고 원담으로 질서를 지키며 걸어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고기를 몰아 주면서 망에 가득 고기를 잡아오는 것이다. 모두가 한가득 고기를 들고 환한 미소를 띠며 돌아갈 수 있는 축제,

제10회 금능원담축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막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원담 |

정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해안가에서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쌓아 만든 돌담.

개설 | 제주 해안가에서 살짝 만(灣)을 이룬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하거나 인공적으로 돌담을 쌓아 돌리막아 놓고 밀물을 따라 들어온 고기가 썰물이 되어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 자연히 그 안에 갇히므로 쉽게 잡을 수 있게 장치해둔 곳으로 '원' 또는 '개'라고 한다. 돌로 만든 그물인 셈이다.

명칭유래 | 조천읍 조천리에서부터 구좌읍 하도리까지는 '개', 그 외의 지역에서는 '원'이라고 한다. '개'는 해변 후미진 곳의 이름에서, 그리고 '원'은 한자어 원(垣, 담·울타리)에서 비롯한 말이다.

형태 | 원담은 지형을 이용해 축조한다. 지형상 물쪽으로 우묵하게 패인 곳이면 양쪽 코지를 축담하여 이었고, 섬 같은 암반이 솟아 있는 곳에서는 그 암반을 의지하여 사이사이 돌담을 쌓기도 하였다. 바다 밑바닥이 주위보다 우묵하게 낮아 썰물 때도 물이 고이는 소(沼)는 조금만 축담하면 수백, 수천 평에 이르는 훌륭한 돌그물을 얻을 수 있었다.

원담의 길이는 지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지만, 높이는 1m, 폭은 2m 내외다. 안팎담을 수평으로 쌓거나, 안담은 직선으로 높게 쌓고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비껴 쌓아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때로는 소 자체가 천연의 '바다못'이 돼, 썰물 때도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므로 축담이나 보수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완벽한 돌그물 역할을 하는데, 이 천연 돌그물을 '통'이라 부른다.

제주도 원담의 모양은 크게 직선형(直線形)과 곡선형(曲線形)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돌담의 단면은 직삼각형과 직사각형이 있다. 파도의 영향이 덜 미치는 원담은 직선형 또는 지그재그 형으로 만들었고 단면 모양은 거의 직사각형이었다. 파도의 영향이 곧바로 미치는 원담은 곡선형이 대부분이었고 그 단면의 모양은 직삼각형이었다. 돌담의 직삼각형 단면은 직사각형보다 노동력이 더욱 요구된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 고기잡이 시기가 되면 원에 갇힌 고기를 어종에 따라 '족바지'(둘레 모양의 도구)로 뜨거나, 살을 썬 잡기도 하고, 그물을 쳐두었다가 휘몰아 잡기도 한다. 어로 시간은 원이 조간대의 어느 위치에 자리하느냐와 관련된다. 조간대 상층에 있는 원에서는 썰물이 들면 물이 다 빠져나가므로 밀물 때부터 작업해야 하며 하층에 위치한 원은 완전 썰물 때에도 물이 고여 있어 작업이 가능하다.

제주의 원담은 마을 공동 소유로 지켜졌다. 멜(멸치)이 들면 마을 사람들이 한데 나와 잡았고, 원담을 쌓고 보수하는 일도 공동 작업으로 진행됐다. 겨울철 파도에 허물어진 원담을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나면 풍어를 기원하면서 제를 지내기도 했다.

요즘은 어선 조업이 발달해 원담에서의 고기잡이는 거의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공유수면의 매립이나 해안 도로 개설로 원담이 파손되고 있다. 원형이 제대로 보존된 것은 구좌읍 하도의 원과 제주시 연대마을의 원 등이다. 너른 바다에 천연의 검은 돌로 길을 내가듯 쌓은 원담. 썰물 때 드러난 물속 돌담은 가히 대장관이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



제1일차

시 간	프로그램명	내 용
10:00 - 22:00	체험 및 전시	축제장 내 체험 및 전시장 운영
10:00 -	행사준비 및 BGM	
13:00 - 18:00	경연프로그램	- 모래성쌓기 경연 - 강이잡기 경연 - 조개잡기 경연 등
14:00 - 14:30	퍼포먼스	원담길 걷기 행사
14:30 - 15:00		식전행사 - '서쪽하늘' 4인조 밴드
15:00 - 15:30		개막선언 풍물 및 원담퍼포먼스
	제10회 금능원담축제 공식행사	축하공연 해녀노래 -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관악양상블5인조 - 제주브라스퀸텟 해녀춤 - 다온어린이무용단 성악이중창 - 테너 강창오&소프라노 최윤덕
15:30 - 16:30		
19:00 - 20:00	특설무대 공연	군악대 연주 - 해병대 9여단 군악단 기타공연 - 훈디마썸 1070 청소년밴드 - 짐수톤
20:00 - 21:00	체험행사	선진그를 체험
21:00 -	퍼포먼스	불꽃놀이
21:00 - 22:00	특설무대 공연	사우스카니발
22:00 - 24:00	상상타입	치맥과 함께하는 상상타입

| 원담축제 내용 |

- ❖ **특별공연 및 경연** | 제8회 전국백난아가요제
- ❖ **체험** | 맨손으로 고기 잡기 체험, 선진그를 놓기 체험, 태왁 만들기 체험, 원담길 걷기 체험
- ❖ **전시** | 원담홍보전시관 운영, 한수품문화회 사회전
- ❖ **공연** | 사우스카니발, 금능풍물패, 해녀노래, 양상블5인조, 해녀춤, 성악듀엣, 아버지밴드, 기타동아리
- ❖ **퍼포먼스** | 원담에 멜들었져
- ❖ **경연** | 모래성 쌓기, 조개잡기, 강이잡기
- ❖ **장터** | 금능원담플리마켓
- ❖ **먹거리** | 원담밥상, 강이튀김, 멜튀김 등
- ❖ **포토존** | 원담할아버지, 해녀 포토존 조성

제2일차

시 간	프로그램명	내 용
10:00 - 22:00	체험 및 전시	축제장 내 체험 및 전시장 운영
10:00 -	행사준비 및 BGM	
12:00 - 13:00	특설무대	무대레크레이션
13:00 - 14:00	경연프로그램	- 모래성쌓기 경연 - 강이잡기 경연 - 조개잡기 경연 등
14:00 - 16:00	원담체험	맨손으로 고기 잡기
18:20 - 18:35		식전공연 '소풍가는날' 9인조 밴드 공연
18:35 - 18:55		오프닝 무대 제주지방경찰청 경찰악대 공연
19:00 - 19:10		백난아 가요제 개최 및 축하
19:10 - 19:20		백난아 인생사 영상 (인트로)
		본선 참가자 1~3번 노래
		초청 축하 공연 한림초등학교 '치어리딩 팀'
		본선 참가자 4~9번 노래
		초청 축하 공연 해녀가수 '김은경'
		본선 참가자 10~14번 노래
		초대 가수 공연 박상철
		시상식 및 클로징
		백난아 대표곡 제창
21:00 - 21:10	아듀! 2017년 금능원담축제 & 전국백난아가요제	엔딩불꽃

2017년 마을행사 일정표

정리 | 편집부

일정	행사명	주최·주관
1월	- 농업응수 정기총회 - 노인회 정기총회 - 마을정기총회	농지계 노인회 금능리
2월	- 능향원 정비 - 마을제 봉행	청년회, 부녀회 금능리
3월	- 경로잔치 - 어촌계 정기총회	노인회 어촌계
4월	- 효도관광 - 한림읍 청년대회 참가 - 경로잔치	청년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5월	- 어버이날 행사 - 어버이날 축하공연 - 폐자원 수거	청년회, 부녀회 풍물패 청년회, 부녀회
6월	- 경로잔치 - 탈의실 청소 - 해변 풀베기 및 환경정비 - 해수욕장 개장 고사 - 어패류 방류행사 (전복, 오분자기, 해삼) - 환경시설 견학 - 제10회금능원담축제 준비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금능리 어촌계 부녀회 원담축제추진위
7월	- 경로잔치 - 원담축제 준비행사 - 바다 정화작업 - 읍부녀회 한마음대회 참가 - 제10회금능원담축제 준비	노인회 부녀회 어촌계 부녀회 원담축제추진위
8월	- 제10회 금능원담축제 - 제10회 금능원담축제 축하공연	금능리 풍물패
9월	- 능향원 정비 - 경로잔치 - 바다 정화작업	청년회, 부녀회 어촌계 어촌계
10월	- 추석 단합체육대회 - 추석 단합체육대회 축하공연 - 경로잔치 - 폐자원 수거	청년회, 부녀회 풍물패 노인회 부녀회
11월	- 마을 임시총회 - 경로잔치 - 한수위 축제 참가	금능리 노인회 어촌계
12월	- 경로잔치 - 임시총회 개최	부녀회 청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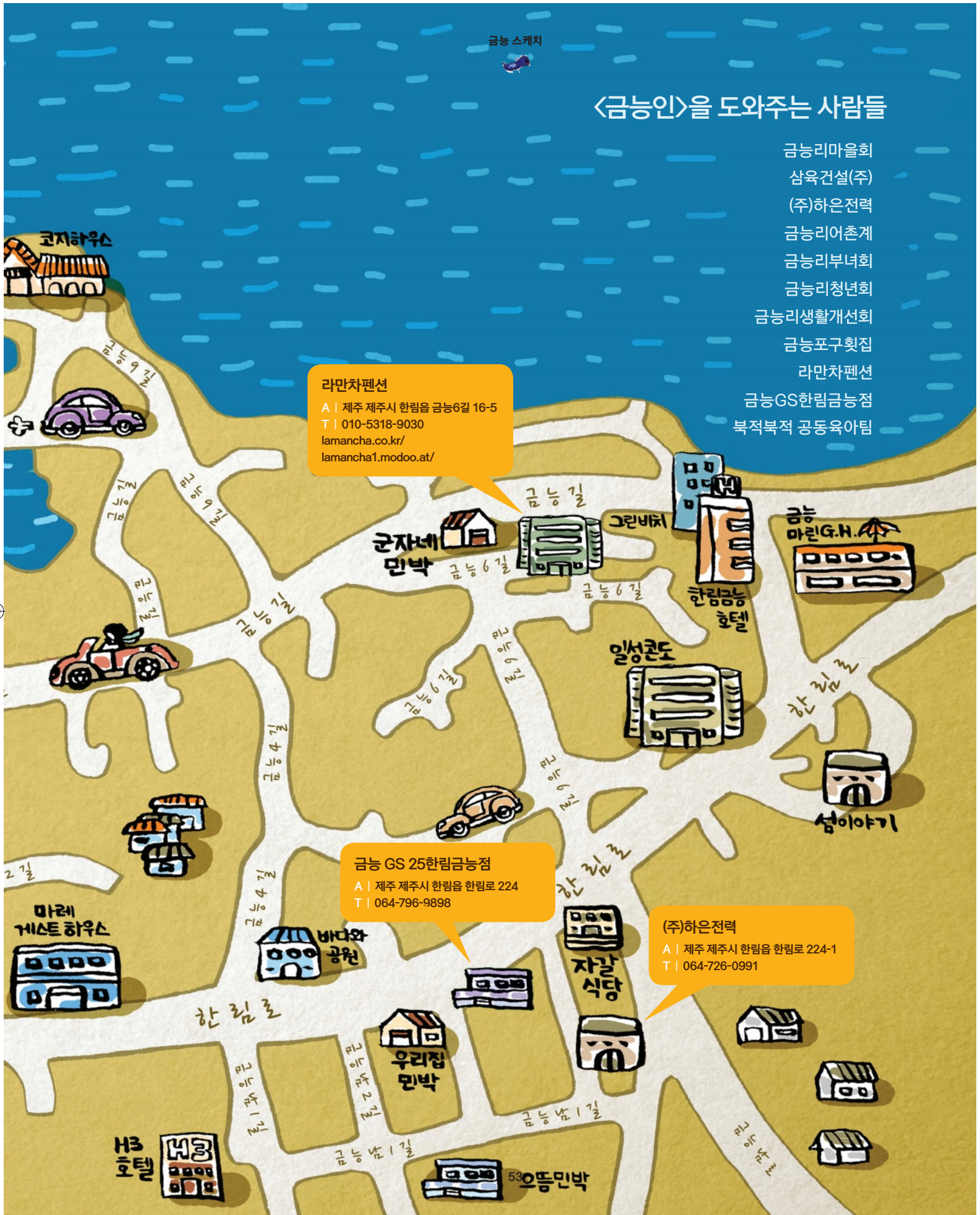


2017년 꿈차롱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일정표

정리 | 편집부

일정	프로그램명 및 세부 내용	
1월	• 테마도서전 - 추리소설의 세계	
2월	• 테마도서전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3월	• 테마도서전 - 우리 민주주의	• 성인 시창작교실 (매주 월요일 19-21시)
4월	• 테마도서전 - 시네마천국으로의 초대 • 어린이 시조교실 (매주 수요일 19-21시) • 수요일밤의 영화클럽 (매월 마지막 수요일 19시)	• 성인 시창작교실 (매주 월요일 19-21시) •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13:30-15:30분)
5월	• 테마도서전 - 전쟁과 평화 • 어린이 시조교실 (매주 수요일 19-21시) • 수요일밤의 영화클럽 (매월 마지막 수요일 19시)	• 성인 시창작교실 (매주 월요일 19-21시) •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13:30-15:30분)
6월	• 테마도서전 - 해녀 이야기 • 풍물교실 (매주 화요일 20-21시) • 동화구연교실 (매주 수요일 19-21시) •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13:30-15:30분)	• 성인 시창작교실 (매주 월요일 19-21시) • 어린이 시조교실 (매주 수요일 19-21시) • 수요일밤의 영화클럽 (매월 마지막 수요일 19시) • 달차롱극단 특강 (6월 17일 18시 - 김진철 교수)
7월	• 테마도서전 - 나라와 나라 사이 • 풍물교실 (매주 화요일 20-21시) • 동화구연교실 (매주 수요일 19-21시) • 수요일밤의 영화클럽 (매월 마지막 수요일 19시) • 청소년인문학동아리 (매주 일요일 9-12시) • <금능인> 출판기념회 (7월 31일)	• 성인 시창작교실 (매주 월요일 19-21시) • 어린이 시조교실 (매주 수요일 19-21시) • 어린이 역사교실 (매주 목요일 19-21시) •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13:30-15:30분) • 문학이 있는 시간 (7월 1일 18시 - 오은 시인)
8월	• 테마도서전 - 바다는 내 친구 • 어린이 시조교실 (매주 수요일 19-21시) • 수요일밤의 영화클럽 (매월 마지막 수요일 19시) • 청소년인문학동아리 (매주 일요일 9-12시) • 박거리 관악제 (8월 8일, 9일, 11일) • 문학이 있는 시간 (8월 19일 18시 - 김선재 소설가) • 찾아가는 도서관 (8월 5일, 6일 - 원담축제장)	• 풍물교실 (매주 화요일 20-21시) • 어린이 역사교실 (매주 목요일 19-21시) •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13:30-15:30분) • 청소년인문학동아리 방학반 (1일-17일) • 문학이 있는 시간 (8월 12일 18시 - 김수열 시인) • 비치코밍 (8월 3-24일 매주 월, 목 14-16시)
9월	• 테마도서전 - 시조를 담는 오롯한 향아리 • 달차롱극단 (매주 화요일 19-21시) •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13:30-15:30분) • 달차롱극단 특강 (9월 26일 19시 - 강용준 희곡작가)	• 풍물교실 (매주 화요일 20-21시) • 수요일밤의 영화클럽 (매월 마지막 수요일 19시) • 청소년인문학동아리 (매주 일요일 9-12시) • 작은도서관 책잔치 (한라도서관 일원)
10월	• 테마도서전 - 어느 멋진 가을 날에 • 수요일밤의 영화클럽 (매월 마지막 수요일 19시) • 청소년인문학동아리 (매주 일요일 9-12시) • 문학이 있는 시간 (10월 28일 - 김가영 수필가)	• 달차롱극단 (매주 화요일 19-21시) •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13:30-15:30분) • 한수풀역사순례길 탐방 (10월 15일) • 전국도서관대회
11월	• 테마도서전 - 유배지의 삶 • 수요일밤의 영화클럽 (매월 마지막 수요일 19시) • 청소년인문학동아리 (매주 일요일 9-12시)	• 어린이 북아트 (매주 수요일 19-21시) • 토요꿈다락문화학교 (매주 토요일 13:30-15:30분)
12월	• 테마도서전 - 겨울밤의 옛날 이야기 • 수요일밤의 영화클럽 (매월 마지막 수요일 19시) • 도서관의 밤	• 어린이 북아트 (매주 수요일 19-21시) • 원화전시회 (11월 23일-12월 7일) • 금능꿈차롱도서관 개관기념식 - 겨울 이야기





〈금능인〉을 도와주는 사람들

금능리마을회
삼육건설(주)
(주)하은전력
금능리어촌계
금능리부녀회
금능리청년회
금능리생활개선회
금능포구횃집
라만차펜션
금능GS한림금능점
북적북적 공동육아팀

라만차펜션

A | 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능6길 16-5
T | 010-5318-9030
lamancha.co.kr/
lamancha1.modoo.at/

금능 GS 25한림금능점

A |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224
T | 064-796-9898

(주)하은전력

A |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224-1
T | 064-726-0991





금능인

금능리 조직도

제공 | 금능리



이장
김성수

노인회장
박용진

개발위원장
송문철

감사
박용근

청년회장
김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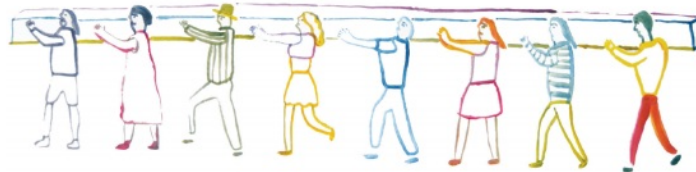
부위원장
고석주

감사
김남규

부녀회장
조미혜

이사무장
노진영

어촌계장
문영철



개발위원

문영남 · 고향준 · 장운봉 · 백동식 · 양민수 · 장규성

자조동장
양영재

자립동장
윤철준

협동동장
손성운

근로동장
양익수





시가 있는 쉼터

나의 하루

강경숙

이른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또다시 묘종 앞에서 물도 주고 이곳 저곳 쳐다보며
나는 라디오 소리에 맞추어 잠에서 깬다 두 개 난 것은 하나를 숨어주고
대충 아침 준비하고는 밭으로 간다 물이 많아서 숨을 쉬 수가 없어요 하는 것은
브로코리 콜라비 비트 방울양배추 묘종을 보며 이끼를 제거하고 새 흙을 넣어준다
눈을 마주쳐 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얼마 후 파란 싹을 본다

묘종들을 옮겨 놓은 밭으로 나는 행복해지고 부자가 된 기분으로 집으로 온다
그러면 어느새 내 등에는 땀 범벅에 헉헉 숨이 찬다

강경숙 금능리민. 농부



편집후기

마을소식지 <금능인>이 드디어 발간을 한다. 본격적인 마을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존의 마을 역사, 전통, 축제, 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기사단이 모였다. 마을소식지를 만들면서 마을에 대해 알아가고 원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상생하면서 겪은 고충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기회도 되었다. 그중에서도 활자매체를 중심으로 취지를 더욱 잘 이해하고 소개하는 마을소식지가 나에게도 참으로 많은 말할 거리와 특색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앞으로도 마을소식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과 이주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노하우도 공유되어 더 나은 <금능인>이 발간되기를 기대해 본다.

꿈차롱기자 차영옥

내 글이 금능인 잡지 창간호에 올려지다니 정말 영광스럽다. 앞으로 꿈차롱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이기자 김예슬

목 빠지게 기다리던 금능인 창간호가 드디어 나온다고 생각하니 넘 기대가 되고 행복합니다. 창간호를 통해 금능 마을 주민 뿐만 아니라 이주민, 관광객들에게도 금능 마을이 친근한 마을로 다가서길 기대해봅니다. 금능인 창간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꿈차롱기자 이윤영

내가 어린이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꿈차롱도서관에 드디어 금능인 잡지가 나왔다. 내 글이 여기에 올려지다니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내가 꿈차롱도서관과 함께 성장한 것처럼 또 다른 많은 어린이들도 이곳에서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어린이기자 김예지

금능인 창간호가 나와서 넘 신기합니다. 금능인 창간호 여성글자 6행시로 창간호 발간을 축하하려 합니다.
금 - 금빛 모래해변 금능으뜸원해변으로 놀러오세요
능 - 능향원도 있고
인 - 인심 좋은 마을 주민들
창 - 창 너머 보이는 아름다운 비양도
간 - 간간히 들려오는 원담 주변 푸른 바다
호 - 호이호이 해녀 숨비소리가 들리는 금능 마을!
사랑해요♡.

어린이기자 양지승

<금능인>을 만들면서 나는 금능리를 배우고, 이웃을 만났다. 내가 살고 있는 금능리가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이 되기를 기대한다.

꿈차롱기자 김순일

금능인 1호가 나오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처음에는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신문기자에게 기사를 쓸 때 문화원칙 기사수령도 듣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금능인 2호~3호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린이기자 양지원

걱정반 기대반 시작했던 꿈차롱 마을잡지 기사활동... 우선 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 신석하고 의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취재와 기사작성에 대한 강의를 통해 막연하던 기사활동의 밑그림이 그려졌고, 다양한 연령대의 마을 주민들과의 대담 인터뷰를 하면서 마을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어릴 적 추억을 소환하면서 즐거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던 시간 또한 즐겁고 유쾌한 경험이었습니다. 편집할 때 생각보다 긴 녹취록을 정리하느라 여러 번 반복해 듣고 매끄럽게 다듬어야 하는 작업은 잘 듣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 속에서 꿈차롱도서관 관장님과 사서 선생님들의 큰 노고와 끈기에 힘입어 저와 제 아들이 미약하나마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결과물이 나오게 된 데 큰 기쁨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금능인 마을잡지의 무궁한 발전과 2호, 3호, 지속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금능인 파이팅!!

꿈차롱기자 이상숙

처음엔 엄마가 권하시기에 그냥 관찰했다 싶어서 엄마랑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했어요. 재능초 관련 취재라 쉽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와 선생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무사히 취재를 마쳐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마을을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능인 마을잡지여~ 멋지게 비상하러!!

어린이기자 최우준

쪽빛 바다가 아름다운 금능리의 마을소식지인 <금능인>을 만드는 동안 바다처럼 투명한 금능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바다처럼 언제나 행복한 금능리가 되길, 그래서 행복한 이야기를 계속 길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능인>을 만드는데 손발을 아끼지 않았던 편집부 식구들과 창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꿈차롱기자 홍임정